

## 유럽대학과 학술교류 국제교류팀 협의차 출국

국제화추진단 국제교류팀이 어제(9일)부터 14일까지 5박 6일 동안 독일 함부르크 대학 등과의 학술교류협정체결을 위해 해외출장을 떠났다.

국제화추진단 김일중(국제통상학)단장과 국제교류팀 김상유 직원은 태국 마히돌 대학(Mahidol University), 루마니아 바베쉬 보요이 대학(Babes-Bolyai University), 독일 함부르크 대학(Hamburg University)을 방문해 학술교류협정 체결 및 교류사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상유 직원은 "이번 출장은 학술교류와 더불어 우리학교 학생의 해외 진출과 국제화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 재단이사 유광진 교수 지난 1일 별세, 장례 엄수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유광진(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 명예교수가 지난 1

일 오후 5시경 별세했다.

유광진 교수는 우리대학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우리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30여년간 봉직했으며 학생처장, 총무처장, 사회과학대학 학장, 행정대학원장을 역임하고 지난해부터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로서 활동해왔다.

## 불교대학 교수 일동 로스쿨기원 2백만원 전달

우리학교 불교대학(학장=혜원 스님·선학) 교수 일동이 학교 측에 로스쿨 추가 선정을 지원하는 뜻에서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금 전달에 대해 불교대학 교수들은 "불교정신을 함양한 법조인 양성에 동국대학교가 제의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로스쿨로 인해 불편을 겪었지만, 로스쿨 추진을 위해 애쓰는 학교 당국을 위한 작은 정성"이라고 말했다.

로스쿨 선정을 위해 필요했던 법학관(구 만해관) 리모델링으로 인해 불교대는 행정지원실, 교수연구실, 학생회실을 모두 다른 동으로 이전했다. 이로 인해 불교대 구성원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 협상테이블 대신 '경영방침설명회'

## 설명 후 질의응답 ... 실질적인 논의보다는 형식에 그쳐



'경영방침설명회'에서 오영교 총장이 학생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08학년도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경영방침설명회'가 등록금 협상을 대신해 지난 6일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오영교 총장, 한진수 경영부총장, 최순열 학사부총장 및 각 부서 본부장들이 설명자로 나섰다. 학생대표자로는 제 40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대표들과 대학원 총학생회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오 총장의 2008학년도 경영방침 설명과 학생 대표자들의 대표질의, 각 기관장들에 대한 자유질의

순으로 진행됐다.

오 총장은 등록금 9% 인상에 대해 △교수총원 △교육환경 개선 △고객만족 경영 △국제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계획에는 신공학과와 기숙사 신축, 영어 트랙제 도입, CS 경영을 바탕으로 한 경영·행정 시스템 변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학교 재정의 70~80% 가량을 등록금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재단에 대한 재정적 도움 요청과 학교 소유 부동산 처분 등으로 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대표자들은 재단전입금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 까닭과 500억 원 가량의 이월 적립금이 있는데도 등록금을 인상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홍성조(산업시스템공학) 전략기획본부장은 "재단 자금 상황이 좋지 못하다. 빠른 시일 안에 재단전입금이 들어올 것이라 기대한다"며 "500억 원의 이월 적립금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자료"라고 해명했다.

이날 자리에서 등록금 인상 문제 외에도 다양한 학내 문제들이 쏟아졌다. 동국관 외벽 공사가 반드시 필요한 공사였다는 지적에 오 총장은 "미관상도 좋지 않고, 누수와 방열 문제 때문에 전체적인 외벽 리모델링을 추진했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학생 대표자들은 만해관 리모델링으로 학생자치기구 공간이 축소·이전된 것에 대한 사과와 명진관과 원흥관 시설 확충을 요구했다.

이번 설명회는 참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참고자료도 배부되지 않은 채 파워 포인트 자료로 개괄적인 설명을 하는데 그쳤다. 라인호

(생물4) 비대위장은 "학교 측의 일방적인 설명을 듣는 자리에 그쳐 유감스럽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당초 1시간으로 예정된 자유질의 시간은 학교 측의 형식적인 답변에 대한 학생 대표들의 계속되는 질문으로 2시간 가량 연장됐다. 그러나 길어진 시간에 비해 등록금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상대적으로 빈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창희(북한학과 박사과정 3학기)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설명회시간은 길어졌지만 정작 등록금에 대한 언급은 극히 적어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설명회가 끝난 후 학생대표들은 예정과 같은 환불을 위한 협상 테이블 구성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김정태(국교4) 사범대 학생회장은 "아직 뚜렷한 계획은 없으며 다음 비대위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비대위에서 명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단과대 별로 행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배중성 기자 baessi03@dongguk.edu



관음지장보살 ... 지난 5일 정우택(미술사학) 교수가 국보급 고려불화를 발견했다. 이는 지금까지는 조선시대 불화에서만 발견됐던 전신 백의 관음도가 고려시대에도 조성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사진제공=정우택 교수

## 선학과, '선(禪)' 실용학문화 추진

### 간화선 위주에서 '선 심리상담' 등으로 대폭 개편

선학과의 올해부터 강의교과목을 실용적이고 현대화된 '선 심리상담' 등으로 대폭 개편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로운 변화의 핵심은 기존의 문헌학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다.

선학과(학과장=종호스님)는 올해 3, 4학년 1학기 전공과목으로 △선과 중국철학 △선 심리상담 △선과 현대사회 △위빠사나의 이해와 실습 등을 신설했다. 또 2학기에는 △선과 서양철학 △비교명상의 이해 △선 문화론 과목이 신설된다. 2009년부터는 △선과 명상음악 △선 수행 지도방법론과 실제 '선'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강좌들이다. 선학과의 최종 목표는 '선 심리

상담사'와 '선 포교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필수교과목을 이수하고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자격증이 부여된다. '선 심리상담사'와 '선 포교사'를 통해 선의 대중화를 꾀하는 것이 선학과의 계획이다.

'선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포함해 총 25과목 75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위빠사나·간화선수행을 각각 240시간씩 실천해야 하며 상담실습 40시간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여기에 순수 상담, 선 상담으로 구성된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선 심리상담사' 3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3급 자격증을 가진 졸업생은 석사가 돼야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1급 자격증은 박사학위소지자에게 주어진다. 선학과 주임 교수 종호스님은 "선은 정신분야와 관련한 상담프로그램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사

람들의 정신문제를 다루는 부분이기에 체계적인 교육과 엄격한 관리로 자격증을 남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학과 스스로의 변화 노력에 학생들의 뜨거운 반응도 뒤따랐다. 올해 선학과를 전공으로 선택한 2학년 학생 가운데 일반학생은 모두 6명이다. 예년에 2~3명 정도에 불과하던 학생 수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남아 있다.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실습, 실습 등을 위해 들어야 하는 비용과 선 심리상담을 전공한 전문가의 문제 해결을 도와야 한다. 또한 아직 자격증 발급에 대한 제도적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선학과는 "장학회를 설립해 경제적 부분을 지원해주고, 자격증이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미혜 기자 lisonaral@dongguk.edu

## 중앙도서관, 불설아미타경 환수

### 일제 때 중앙불전에서 유실 ... 고마자와대학 반환

지난달 19일 '불설아미타경'이 우리학교 도서관으로 반환됐다. 일제 때 고마자와대학에서 소장 중이었던 책으로 70여년 만에 돌아온 것이다.

이 책은 1930년 우리학교의 전신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수가 재직했던 에다 도시오 전 고마자와대학 교수가 보관해오던 것을 유족이 대학 측에 기증했다. 그 후 고마자와대학 도서관 관계자가 도서관을 정리하던 중 '중앙불교전문학교' 장서인이 찍힌 고서 한 권을 발견하고 13일 우리학교에 반환의사를 밝혔다. 다음날 중앙불교전문학교를 계승한 우리학교가 책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명백히 밝혀 반환을 요청했다. 6일 후 항공우편을 통해 '불설아미타경'을 환수 받았다. 이번에 반환된 '불설아미타경'은 '무량수경', '관무량수경'과 함께 정토3부경의 하나이며 아미타불과 극락정토의 장엄함을 설명하고 아미타불을 한마음으로 부르면 극락에서 왕생한다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경전의 내용을 표현한 '변상도'는 매우 희귀하고 독특한 양식으로 중세 불화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이 판본은 현재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은 희귀본으로 임진왜란직후 국어학연구 및 불화연구, 판본학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

우리학교 2007년도 총 기부금이 54억 원으로 집계됐다. 우리학교는 매년 기부금 목표치를 50억 원으로 책정하여 이를 초과달성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보다 두 배 가량 많은 1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학교는 기부자들에게 연례행사마다 기념품을 전달하고 학교 공식 행사에 초청장을 보내는 등 다양한 우대 방법으로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 9월 중에 고액 기부자들의 이름을 동판으로 제작하여 강의동에 부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사업개발본부의 박광호 실장은 "기부자의 이름을 딴 강의실에 설치하고 장학제도 도입으로 기부를 장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 54억원 모금 올해 목표 1백억원으로 상향

### 우리학교 2007년도 총 기부금이 54억 원으로 집계됐다.

우리학교는 매년 기부금 목표치를 50억 원으로 책정하여 이를 초과달성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보다 두 배 가량 많은 1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학교는 기부자들에게 연례행사마다 기념품을 전달하고 학교 공식 행사에 초청장을 보내는 등 다양한 우대 방법으로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 9월 중에 고액 기부자들의 이름을 동판으로 제작하여 강의동에 부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사업개발본부의 박광호 실장은 "기부자의 이름을 딴 강의실에 설치하고 장학제도 도입으로 기부를 장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본사 수습기자 선발 관계로 다음 주 신문은 휴간합니다. 제 1456호 동대신문은 3월 31일자로 발행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동대신문사** 852

**우량주에 투자하십시오**

## 동대신문사 수습기자 모집

모집인원 ○○명  
응시자격 1학년 재학생  
모집분야 취재기자, 편집기자, 사진기자, 그래픽기자, 웹미디어기자  
접수기간 3월 3일(월) ~ 3월 13일(목) 오후 5시 까지, 6시 면접  
원서배부 대학본관 1층 제일은행 옆 동대신문사 편집국  
www.dgupress.com에서 접수 가능

문의 본사 홈페이지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전화: 02) 2260-3491~2 E-mail: dgupress@dongguk.edu

혜택 소정의 활동비, 장학금 지원  
교내 국제교육원 주관 어학특강 방중 무료 수강

### 지면안내

**3면 학술**  
박영호가 일본에 수선사로 가며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국기 원형을 한철호(역사교육과) 교수의 기고문을 통해 알아보자.

**4면 기획**  
등록금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근본적인 갈등원인을 알아보고자 연재기획을 준비했다. 기획연재 ② 우리대학의 등록금 인상 요인 및 재정확보

**5면 문화기획**  
세익스피어 원작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변안한 연극 '해오라기와 솔피'를 소개하고 그 속에 담긴 한국적 정서를 살펴본다.

**8면 문화**  
학교 근처 점심 먹기 좋은 맛집 7곳을 소개한다. 더불어 학교 역사와 함께 한 전통있는 가게의 주인장들을 만나보자.

# 강의평가 공개 후 확 달라진 '개강 분위기'

강의평가결과 공개 이후 개강풍경이 예년과 달라졌다.

그동안 의례적으로 개강 이후 첫 수업은 휴강 또는 간략한 인사말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난 학기 강의평가결과가 공개되자 첫 강의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했다는 의견이다. 같은 강의를 같은 교수에게 3번째 듣는다고 밝힌 이 모(공과대3) 양은 "언제나 개강 후 첫 강의는 휴강이었는데 이번엔 강의계획 및 수업일정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며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한 학기동안 강의계획 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문 자체의 전반적인 소개와 학과 교육과정까지 설명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일반교양으로 개설된 18개의 체육교양강좌의 경우 체육교육과 주임교수가 일일이 첫 수업시간마다 강의계획서로는 부족한 강의설명을 하기도 했다. 임식(체육교육) 주임

교수는 "특히 스포츠 분야의 경우 일반학생들은 해당 과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중강 때까 지 부적용 사례가 많다"며 "교무팀의 제안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 첫 강의 휴강사례는 줄고 강의 설명은 더욱 상세해져 설문 통해 강의평가 보완도

이 같이 개강 첫 주부터 달라진 수업 분위기에 일부 학생들은 "강의평가공개 이후 달라진 것이 아니겠느냐"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수들도 강의평가결과 공개를 상당히 의식하는 모습이었다. 저마

다 강의시간을 통해 강의평가결과 공개에 대해 한마디씩 언급했다. 한 교수는 "강의평가결과를 보고 들어온 것이냐"며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 확인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교수는 "강의평가가 무서워 첫날부터

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설문은 △평가공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수강신청시 활용여부 △강의평가공개 결과의 신뢰도 △강의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교무팀 강형석 팀장은 "실제 학생들이 강의평가결과 공개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알아보고자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 설문결과를 강의평가공개에 따르는 문제점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수회(회장=정재형·영상영화학과)는 오늘(10일) 강의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입장을 성명서를 통해 발표했다. 교수회는 성명서에서 "강의평가 자체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교수들의 동의없이 공개한 것은 비교육적"이라며 "이에 대해 학교 측에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 2008 동국 국제 하계 대학 접수 시작

### 옥스퍼드 콰브리치 교수 등 세계적 석학 초청

2008 Dongguk International Summer School(동국 국제 하계 대학)이 7월 3일부터 시작된다. 국제화추진단(단장=김일중·국제통상학)은 28일까지 조기접수를 받으며 최종 접수는 6월 13일까지다.

Dongguk International Summer School은 해외 유수한 석학들과 학생들을 초청해 교내에서 세계적 지식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강의는 지난해 여름과 달리 과학분야를 추가해 해외 학생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월 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session 1에서는 △미네소타 대학 Praveen Aggrarwal 교수 의 International Marketing △옥스퍼드 대학 R. Gombrich 교수의 Buddhist Thought & Culture △벤

제스터 대학 Luis Perez-Gonzalez 교수의 Audio-Visual Translation 이, 7월 17일부터 29일까지 이루어지는 session 2에서는 △켄사스 대학 Tom Weiss 교수의 From Colony to Superpower : Long Term Development of the US Economy △워싱턴 대학 Jerry Sullivan 교수의 International Trade Investment △동국대학교 황순일 (인 도 철 학 ) 교 수 의 Understanding Korean Culture and Religion △동국대학교 손인수(전 자 공 학 ) 교 수 의 Computer Networking and Internet이 계획 되어 있다. 국제화 추진단 국제교류팀 김상유 계장은 "교수진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모든 강의는 영어로 진행되며 각 강좌별 3학점씩 인정하는 것도 이번 프로그램의 특징. 또한 국제화계대학 수강자는 교환학생 선발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수강 신청은 학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료는 일인당 5만원, 수강료는 과목당 50만원이다. 재학생은 수강료의 20%가 할인되며 이 와 함께 재학생과 동문자녀와 손자, 손녀에게는 강좌당 교수장학금 10만원이 지급된다. 오는 14일까지 등록시 수강료의 15%를, 28일까지 등록 시 10%의 수강료 할인 혜택이 있으며 등록금 증금은 6월 16일까지다.

문서영 기자 syoob@dongguk.edu

## 중앙도서관 기증 도서 두달간 약 4천 8백권

중앙도서관(관장=석원경·화학)에 도서기증이 잇따르고 있다.

故 이흥세 전 마포전법원장의 부인 송미령 씨는 불교공부에 매진하던 남편의 뜻을 이어받아 지난 1월 우리학교 도서관에 1천여권의 불교관련 서적을 기증했다. 우리학교 국문학과 교수였던故 이흥기 교수의 부인 조은숙 씨 역시 3천 6백여권의 문학관련 서적을 기증했다.

동문의 기증도 잇따랐다. 강진치(정외65졸) 동문은 제주도에서의 35년 교직생활을 마무리하며 제주도 관련서적 등 1백여권을 기증했다. 강진치 동문은 이외에도 개교 100주년이었던 2006년에 합격통지서, 학교교재, 성적표 등 학교관련 문서 70여점을 기증한 바 있다.

강 동문은 "후배들에게 널리 읽혀지는 자료로 쓰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공문을 읽어 내려간 신 과장은 이 책이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도서관 장서인이 찍혀있고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수를 지낸 에다 도시오의 유족이 기증해 입수경위는 불분명했지만 분명 중앙불교전문학교가 소유했던 것이었다.

신 과장은 시일이 지체되면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과 부족한 일련이 실력에도 사전을 찾아가며 하루 만에 답장을 썼다. 중앙불교전문학교를 계승한 우리학교에 소유권이 있음을 밝히고 빠른 반환을 요청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학술 교류 및 자료교환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난 달 19일 중앙도서관에 불설아미타경이 도착했다. 이번에 환수된 불설아미타경은 목판 인쇄본

## 학내 곳곳에 열람실 좌석 추가

### 중앙도서관·문화관·동국관 등 581석 늘어나

법학전문도서관 신설에 따라 750석 감소된 열람실 좌석이 도서관과 문화관, 동국관에 추가돼 학습공간이 확대됐다.

감소된 좌석을 보충하기 위해 중앙도서관 315석, 예전 그림식당

이 있던 문화관 지하2층 156석, 동국관 L동 110호 120석이 추가됐다. 또한 법학관 1층 열람실은 리모델링 이전처럼 24시간 개방제로 운영된다. 학내 열람실 현황은 다음과 같다.

건물	장소	좌석수	이용시간
중앙도서관	전 층	1,763석	09:00~21:00
	별관열람실	324석	06:00~00:00
법학관	2~3층	92석	09:00~21:00
	1층	223석	24시간 개방
동국관	2층 등극사랑	176석	06:00~23:00
	110호	120석	07:00~23:00
명진관	3층 문과대 열람실	82석	07:00~23:00
원흥관	3층 공과대 열람실	92석	06:00~00:00
학림관	교수학습 자료실+사법대학 열람실	93석	06:00~23:00
문화관	지하 2층 옛 그릴	156석	06:00~00:00

## 외국어교육센터 외국어 프로그램 수강자 모집

교양교육원(원장=박명관·영어영문학) 외국어교육센터에서는 오늘(10일)부터 2008년 1학기 원어민특강, 토익, 토플 외국어 프로그램 신청자를 모집한다.

원어민 특강은 월, 수, 금 주 3일 로 진행되며 수강료는 9만원이다. 원어민 특강을 제외한 모든 강의

는 월, 화, 수, 목 주 4일로 진행되며 수강료는 12만원이다.

신청자는 해화관 1층 외국어교육센터 사무실에서 방문접수하거나 clinic@dongguk.edu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외국어교육센터(2260-3468)로 문의하면 된다.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우산 대여 서비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센터장=이시영·가정교육)가 이번학기부터 비오는 날 학생들에게 우산을 무료로 빌려준다.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학생증을 맡기면 본관 2층에 위치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서 우산을 대여할 수 있다. 학생증은 우산을 반납함과 동시에 돌려받게 된다.

동대신문 제1454호(3월 3일자) 2면 '좋은 교사 되기 경연대회' 기사 중 사법대학 학장 '이혜숙(국어교육)'을 '김혜숙(국어교육)'으로 정정합니다.

## 2009 대입전형 기본계획안 확정

### 정시 논술폐지·영어우수자 선발인원 늘려

우리학교 '2009학년도 대입입학전형 기본계획안'이 지난 6일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주요내용은 △수시 학생부 비중 확대 △정시 논술폐지 △영어우수자 미국복수학위전형 등 신설이다. 입학전형의 주요 특징은 수시에서 학생부의 비중을 확대한 것이다. 수시2-1은 단계별 전형으로 1단계 학생부100%, 2단계 학생부 60% 논술40%로 선발한다. 2-2는 100% 학생부로 선발한다.

정시 '가군' 전형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수능 100%로 선발하고 '나군'은 논술을 폐지하고 수능 60% 학생부40%로만 선발한다.

## 제2기 108리더스 경쟁률 3.36 대 1 서류 및 면접 심사 거쳐 28일 최종 합격자 발표

제2기 108리더스가 총 지원자 363명, 3.36: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

3학년(5, 6학기 등록생)만 지원 가능 하게 된 제2기 108리더스는 작년 제1기 108리더스의 경쟁률이 3학년 및 4학년 지원자를 합산해서 3:1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 제5회 도서관 문학기행 동리·목월 문학관 방문

중앙도서관(관장=석원경·화학)이 오는 22일 경주 동리·목월 문학관으로 떠나는 문학기행을 주최한다.

제5회 도서관 문학기행은 직원, 동문, 학생 등 모든 동국가족 30명

## 중앙도서관 기증 도서 두달간 약 4천 8백권

중앙도서관(관장=석원경·화학)에 도서기증이 잇따르고 있다.

故 이흥세 전 마포전법원장의 부인 송미령 씨는 불교공부에 매진하던 남편의 뜻을 이어받아 지난 1월 우리학교 도서관에 1천여권의 불교관련 서적을 기증했다. 우리학교 국문학과 교수였던故 이흥기 교수의 부인 조은숙 씨 역시 3천 6백여권의 문학관련 서적을 기증했다.

동문의 기증도 잇따랐다. 강진치(정외65졸) 동문은 제주도에서의 35년 교직생활을 마무리하며 제주도 관련서적 등 1백여권을 기증했다. 강진치 동문은 이외에도 개교 100주년이었던 2006년에 합격통지서, 학교교재, 성적표 등 학교관련 문서 70여점을 기증한 바 있다.

강 동문은 "후배들에게 널리 읽혀지는 자료로 쓰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공문을 읽어 내려간 신 과장은 이 책이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도서관 장서인이 찍혀있고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수를 지낸 에다 도시오의 유족이 기증해 입수경위는 불분명했지만 분명 중앙불교전문학교가 소유했던 것이었다.

신 과장은 시일이 지체되면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과 부족한 일련이 실력에도 사전을 찾아가며 하루 만에 답장을 썼다. 중앙불교전문학교를 계승한 우리학교에 소유권이 있음을 밝히고 빠른 반환을 요청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학술 교류 및 자료교환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난 달 19일 중앙도서관에 불설아미타경이 도착했다. 이번에 환수된 불설아미타경은 목판 인쇄본



"나도 동국인" ... 중앙도서관(관장=석원경·화학)은 도서관 2층 로비에서 신입생의 중앙도서관 출입과 도서대출을 위한 임시 바코드를 3월 말까지 발급하고 있다. 정동훈 기자 gfd1226@dongguk.edu

### 동약포에서

## 성실의 열매

중앙도서관 신해철 과장은 꽃샘 추위가 한창이던 지난 달 13일 국제우편 한통을 받았다. 편지의 발신인은 일본 고마자와 대학. 고마자와 대학이 동국대 소유로 보이는 고서를 반환하겠다는 공문과 함께 고서의 사진을 보내 온 것이다. 편지를 받은 신 과장은 사진의 고서가 정토삼부경의 하나인 '불설아미타경'임을 알고 깜짝 놀랐다.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공문을 읽어 내려간 신 과장은 이 책이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도서관 장서인이 찍혀있고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수를 지낸 에다 도시오의 유족이 기증해 입수경위는 불분명했지만 분명 중앙불교전문학교가 소유했던 것이었다.

신 과장은 시일이 지체되면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과 부족한 일련이 실력에도 사전을 찾아가며 하루 만에 답장을 썼다. 중앙불교전문학교를 계승한 우리학교에 소유권이 있음을 밝히고 빠른 반환을 요청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학술 교류 및 자료교환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난 달 19일 중앙도서관에 불설아미타경이 도착했다. 이번에 환수된 불설아미타경은 목판 인쇄본



정동훈 기자  
gfd1226@dongguk.edu

## 헌문무담?! 현문무담?!

○... 로스쿨 시위현장, 보이지 않는 학생대표자들.

「RE: 비대위이니가요... 왜 등록금인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이 없으신 겁니까?」

「RE: 비대위이니가요... 「...영향력이 떨어진다고 예상되지만,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라 판단되는 것에는 굴하지 않고 힘을 모아...」」

「RE: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대체 뭐니까?」

○... 문1.다음 중 올바른 동아리는?

① 선전물을 지정된 게시판이 아닌 곳에 덕지덕지 붙이는 지저분한 동아리

② 적극적으로 화장실과 강의실에 선전물을 배포하고 치우지 않는 무책임한 동아리

③ 새내기의 눈길을 끌기 위해 있는 대로 음향을 높혀 홍보하는 철면피 동아리

④ 지정된 게시판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성숙한 자세로 홍보하는 매너 좋은 동아리

답: ④

## 선배 평가도 공개?

○... 새내기가 꿈꾸는 총무로는...

선배: 이제 그만 마셔. 내일 9시 강의라며.

후배: 알겠어요. 역시 저 생각해주시는 건 선배밖에 없네요.^^

현실 속 총무로는... 후배: 선배님, 저... 취한 것 같아요. 내일 9시 강의도 있는데...ㅠ

선배: 닥쳐. 분위기가 망치면 세잔 더 먹는다.

국내대학 최초 선배평가 도입해야 하나?

## 사물함 원정대

○...반지의 제왕의 뒤를 이을 판타지 대작!

사물함의 제왕! 자물쇠로 굳게 잠긴 사물함의 봉인은 새로운 주인이 생겨도 절대 풀리지 않는다.

과연 언제까지 '사물함을 비워주세요ㅠㅠ'라는 부적을 붙일 것인가?

3월 말 대개봉! 마이 사물함스~

## 신입생 환영행사 17일부터 동아리연합회서 개최

동아리연합회(회장=김길현·컴공4)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4박 5일간 '신입생 환영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작년까지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되었던 '합동 오리엔테이션'이 폐지됨에 따라 신설된 동아리 주축의 환영행사다.

행사 기간 중에는 팔정도에서 사진 및 그림전시회, 동아리 공연행사 등이 진행되며, 특히 21일에는 만해광장에서 동아리 박람회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 학점포기신청 11일부터 수강신청 포기 25~26일

취득교과목 학점포기 신청이 오는 11일부터 나흘간 시행된다. 학점포기가 가능한 과목은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 폐설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과목의 경우와, 개설학과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학점포기 신청은 과목 수나 학점 수에 제한 없이 가능하다.

한편 수강신청교과목 취소는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시행된다. 수강신청교과목 취소 신청은 소속 단과대 학사운영실에서 배부하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 '동국 튜터링' 및 'Do Dream 학습동아리' 오는 13일까지 선착순 모집 ... 장학혜택 확대

교수학습개발센터(센터장=이종권·수학교육)에서 기획한 '동국 튜터링' 및 'Do Dream 학습동아리' 신청자 모집이 오는 13일까지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은 3~6명의 학생으로 구성하며, 최우수 학습동아리로 선정된 팀에게는 50만원의 장학금 혜택이 주어진다.

이런 과정은 선발된 수가 20개 팀에서 15개 팀으로 줄어들었으나 작년보다 장학금 혜택을 강화했다. 대학원생 튜터에게는 20만 원 늘어남 30만 원을 지급하며 'Do Dream 학습동아리' 과정을 이수한 모든 팀에게는 10만원의 장학금이 주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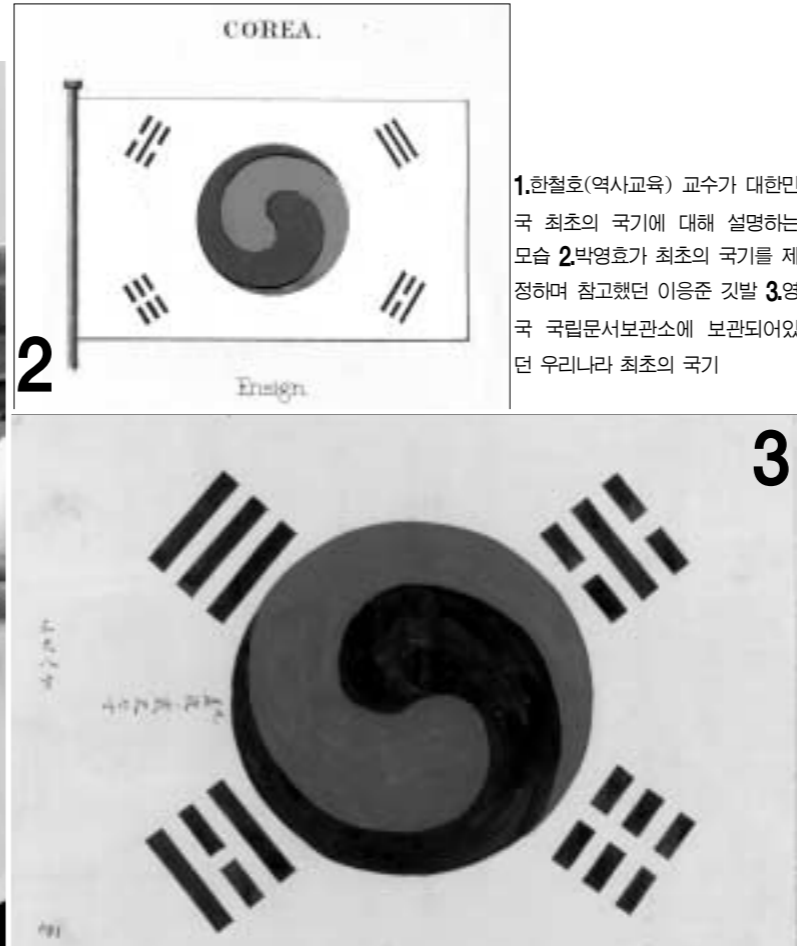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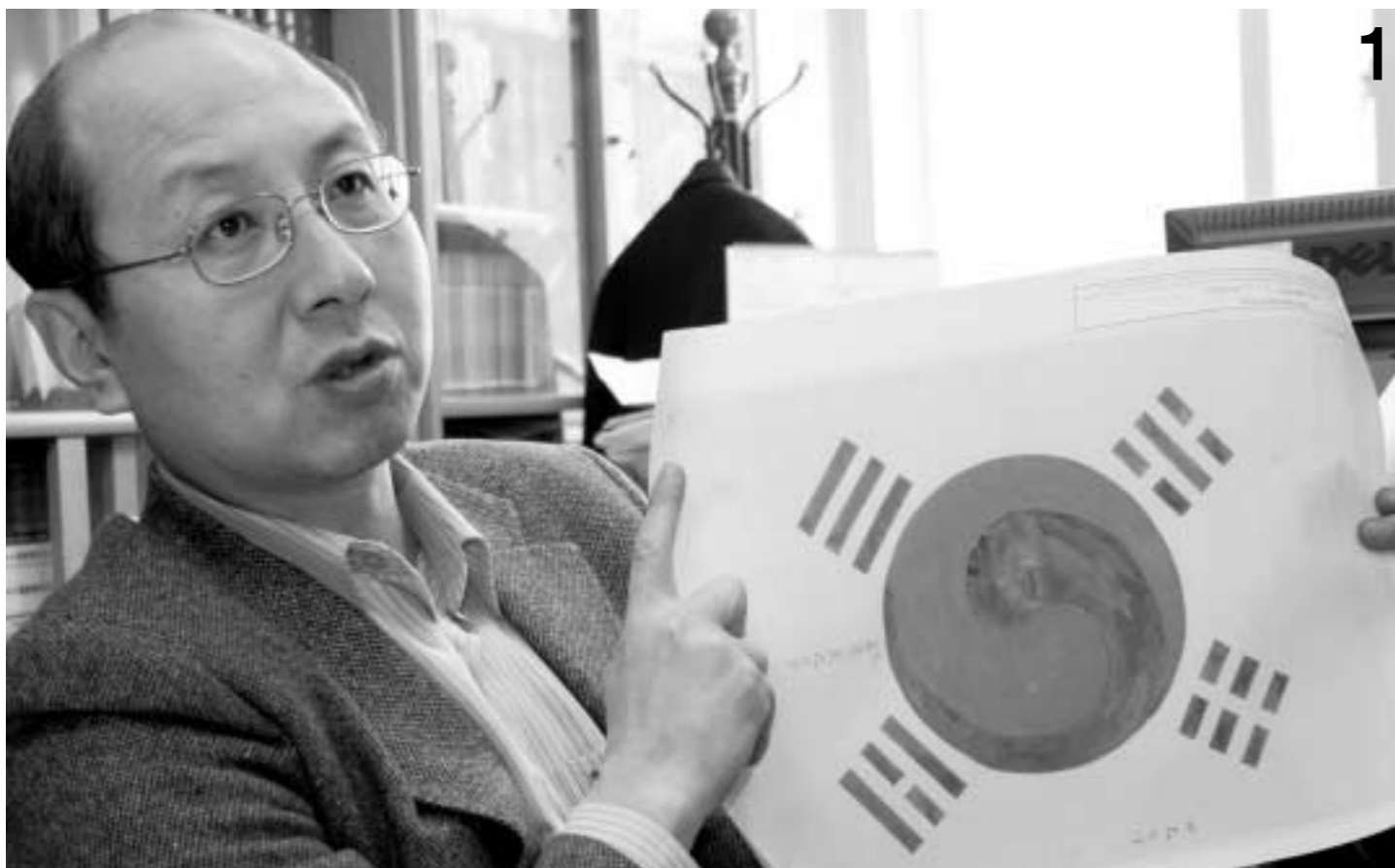
신청방법은 지원서를 교수학습지원센터 이메일(cti@dongguk.edu)로 보내거나 중앙도서관 입구 옆 모집에서는 공동의 학습포표를 가진 15개 팀을 선발한다. 한 팀

높아진 수치다. 취업지원센터(센터장=손재영) 심택은 직원은 "1기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들로 재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부생 10팀, 대학원생 5팀 등 총 15개 팀으로, 각 팀 당 튜터 한 명과 튜터 3~6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Do Dream 학습동아리' 사, 석굴암, 국립경주박물관 등 경주일대를 체험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기 원형 발굴과 그 의미

#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기”



1.한철호(역사교육) 교수가 대한민국 최초의 국기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2.박영효가 최초의 국기를 제정하며 참고했던 이용준 깃발 3.영국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던 우리나라 최초의 국기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는 국기·국가·국화 등을 비롯해 수많은 문화재를 꼽을 수 있다. 이들 중 무엇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국기가 지니는 의미는 매우 각별하다.

## 태극기 원형 둘러싼 논쟁에 ‘물고’

일반적으로 태극기로 불리는 국기에는 파란만장하게 전개된 우리 근현대사의 영욕과 애환이 가장 잘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기는 1882년 9월 25일 수신사 박영효가 일본으로 가는 선상에서 제작·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로부터 12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기의 원본이 남아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원형조차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최초의 국기를 둘러싸고 수많은 논쟁이 벌어져 왔으며, 우리 마음속 한구석엔 그 원형도 알지 못한다는 일종의 자괴감이 자리잡고 있었다. 따라서 건국 60주년을 맞이한 올해 필자가 최초의 국기 원형을 발굴·공개한 것은 단순히 태극기에 대한 기존의 모든 오류와 허실을 바로잡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적 자존심과 자긍심을 회복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 영국 국립문서보관소의 ‘태극기’

한국근대사를 전공하는 필자는 박영효 태극기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던 중 한승훈(고려대 박사과정) 군으로부터 영국 국립문서보관소(The National Archives)에 태극기가 보관되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곳에 소장된 FO 228/871의 문서 속에는 총천연색으로 그려진 태극기와 그에 관련된 편지가 동봉되어 있었다. 필자는 이 들을 치밀하게 분석한 결

과 다음과 같이 이 태극기가 우리나라 최초의 국기로 제정된 박영효 태극기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첫째, 이 태극기와 함께 동봉된 문서의 작성일이 1882년 11월 1일자로 적혀 있다. 이 날은 수신사 박영효가 일본 도쿄에 체류하고 있던 기간과 일치한다. 박영효의 ‘사화기략’에 의하면, 9월 20일 메이지마루(明治丸)를 타고 일본으로 출발한 그는 배위에서 선장 제임스와 의논한 끝에 국기를 제정했고, 9월 25일 고베의 숙소에서 이를 처음 내걸은 뒤 10월 3일 국기 제정 사실을 정부에 보고하였다. 이어 그는 10월 13일부터 12월 27일까지 도쿄에 머무르는 동안 다른 나라 국기와 함께 태극기를 곁고 공식행사를 치루기도 하였다. 따라서 일본 외무성이 입수해서 그린 태극기는 박영효가 제작했던 국기임에 틀림없다.

둘째, 태극기와 함께 동봉된 문서에는 요시다 기요나리(吉田清成)외무대보(차관)가 “며칠 전 귀하[헤리 파크스]가 구두로 요청한 바에 따라 조선의 국기로 통칭되는 깃발의 사본(a copy of a flag said to be the National Flag of Korea)을 동봉”한다고 쓰여 있다. 이 태극기가 바로 조선의 국기, 즉 박영효가 만든 최초의 국기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셋째,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태극기가 박영효의 기록과 일치한다. 박영효는 9월 25일에 “새로 만든 국기를 묵고 있는 누각에 달았다. 기는 흰 바탕으로 네모... 중앙에는 태극을 그려 청색과 홍색으로 색칠을 하고 네 모서리에는 건·곤·감·이의 4괘를 그렸다”고 적어 놓았던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국기를 발굴·고증한 필자는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의 관계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독립기념관이 태극기와 그에 관련된 자료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

기 때문이다. 이후 필자는 기념관과 공동발굴의 형태를 취하기로 합의하고, 2008년 1월 27일부터 2월 1일까지 영국 국립문서보관소를 직접 방문하여 최초의 국기 소재를 확인함과 동시에 그 원형과 관련된 문서를 복사해서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 최초의 국기의 형태와 그 의미

최초의 국기 형태는 첫째, 현재의 태극기와 마찬가지로 바탕은 흰색이며 건·곤·이·감 4괘의 위치도 같지만, 괘의 색은 검정색이 아닌 청색이다. 둘째, 태극은 현행의 태극기와 같이 청·적색으로 되어 있지만, 그 모양은 현재의 것보다 굴곡이 심하다. 셋째, 이번 발굴된 태극기에서 처음 밝혀진 점은 태극기의 크기이다. 최초의 태극기는 가로 4척 7촌, 세로 3척 8촌, 깃대 1촌 2푼이며, 태극의 지름은 2척 7촌이다. 1척을 30.3cm로 계산하면, 가로 142.41cm, 세로 115.14cm, 태극의 지름 81.81cm이다. 이 크기는 박영효가 제작한 태극기 대·중·소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넷째, 깃봉은 현재와 달리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 달도록 되어 있다.

이 태극기는 지금까지 국기 원형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던 ‘통상장정성안취편’(1886년 간행) 소재의 국기와 형태가 거의 비슷하다. 여기에는 ‘대청국속(大清國屬) 고려국기(高麗國旗)’라는 이름 아래 태극기를 게재하였고, 1883년 3월 6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국기 제정을 발표할 지 불과 12일 뒤인 3월 18일자로 수병한 조선국왕 자문에 “국기 한 장을 첨부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우리나라 국기를 ‘대청국속 고려국기’라고 명명했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청국이 우리나라를 자국의 속국으로 여기고 이를 대내외에 역설하려는 의도로 우리 국기의 바탕

을 황색으로 표시하고 태극 양의에 흰 동그라미를 그려 넣음으로써 국기 자체를 왜곡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형태나 4괘의 모양이 일치하는 점으로 볼 때, ‘대청국속 고려국기’는 이번 발굴된 태극기가 최초의 국기 원형임을 입증해주는 근거가 된다.

## 창안자는 이용준, 제작자는 박영효

또한 최초의 국기는 1882년 7월 미국 해군부 항해국에서 간행된 ‘해상 국기들의 깃발’에 실린 태극기와 비교하면, 4괘의 위치와 색깔이 다를 뿐 태극의 모양도 거의 비슷하다. 따라서 이 태극기는 1882년 5월 조미조약 체결 당시 이용준이 그려서 성조기와 함께 걸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태극기는 공식적으로 국기가 제정되기 전 임시로 국기 대신 사용된 것이므로 최초의 국기는 아니다. 이 점은 태극기 아래 국기(National Plag)가 아니라 일반적인 ‘깃발(Ensign)’로 적혀 있는 사실로도 명백하다. 하지만 박영효가 최초의 국기를 제정할 때 이를 참고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지금까지는 박영효가 영국인 선장 제임스의 의견을 받아들여 태극 8괘를 태극 4괘로 바꾼 국기를 제정했다고 알려져 왔다. 한마디로, 박영효는 중국의 속국임을 명시하려 했던 마젠충(馬建忠)의 ‘태극 8괘안’ 요구를 거부하기 위해 일부러 제임스의 의견을 핑계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이용준이 만든 태극기를 모본으로 삼은 셈이 된다. 따라서 최초의 태극기 창안자는 이용준, 제작자는 박영효로 보는 것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다. 이처럼 최초의 국기에는 외세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주와 독립을 추구하는 정신이 강하게 깃들여져 있는 것이다.

한 철 호  
사범대 역사교육과 교수

## 과학 Talk Talk

### 술의 화학적 발견

신화학이 시작되면서 술을 마실 기회가 더욱 많아지게 되면서 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가 마시는 술은 에탄올(C<sub>2</sub>H<sub>5</sub>OH:에틸알코올)의 함량에 따라 술의 세기가 결정된다.

대부분은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화끈거리게 되고 더욱 마시게 되면 취하게 된다. 이는 술에 포함된 알코올이 중추신경의 움직임을 둔화시키기 때문이다. 술에 포함된 알코올의 20%정도는 식도와 위에서, 나머지 80%정도는 소장에서 흡수하게 된다.

알코올의 흡수속도는 알코올의 농도가 약 20%정도일 때 가장 빠르다. 알코올은 소화기의 점막을 통해 혈액 속으로 흡수된다. 이때 위벽을 자극하는 탄산을 사용하면 더욱 흡수속도가 빠른 것은 당연하고 맥주 등으로 입가심을 하면 흡수를 촉진시키므로 폭탄주를 마신 것과 같이 갑자기 취하게 된다.

알코올은 다른 영양소와 다르게 소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위안에 음식물이 없으면 흡수속도는 빠르게 되므로 빈속에 술을 마시면 빨리 취하게 된다.

흡수된 알코올은 간의 해독 작용으로 아세트알데히드와 아세트산(식초성분)을 거쳐 이산화탄소(사이다성분)와 물로 분해된다. 분해되지 않은 알코올의 일부는 지방으로 흡수되어 축적되고 나머지는 땀, 소변, 호흡 등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된다.

숙취는 알코올의 작용이 아니라 체내의 알코올 탈수소 효소(alcohol dehydrogenase)에 의해 알코올이 산화되어 생성된 독성이 강한 아세트알데히드(CH<sub>3</sub>CHO)에 의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때 아세트알데히드는 두통, 조깅, 구토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과음이란 자기 몸에서 분해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알코올을 마신 것을 말하며, 술에 약한 사람이란 알코올탈수소 효소가 체내에서 만들어지기 힘든 사람을 말하며 유전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과음을 때는 스포츠음료나 꿀물 등을 자기 전에 마시도록 하여 탈수 증상을 사전에 예방하고,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할 때 필요한 당분을 미리 보급하면 도움이 된다.

과음한 다음날 숙이 쓰린 이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가 타 주시는 꿀물이야 말로 건강비밀일수밖에!!

신화학이 시작되었다고 너무 간(肝)을 혹사시키지 말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만들어 봅시다.

김 영 순  
이과대학 화학과 교수

#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상담】 동국관(M동) 4층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TEL : 2260-3380 FAX : 2260-3385 http://www.wrting.dongguk.edu

## 제2회 동국 우수 보고서 공모

- 자격 :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 대상 : 2007년 1학기/2학기 및 2008년 1학기 교양 수업 보고서 (전공과목, 졸업논문, 외국어로 작성된 보고서 및 제1회 공모 제출 보고서 제외)
- 응모 방법 : 글쓰기센터 방문 직접 제출
- 응모 마감 : 2008년 3월 7일 - 2008년 4월 4일
- 심사 결과 발표 : 2008년 4월 21일(홈페이지 및 동대신문)
- 시상부문 : 감상문(독서보고서, 영화비평, 일반기행문) 연구조사보고서(학술답사, 연구조사) 일반보고서(그외 일반)
- 시상내역 : 최우수상 3인(부분별 1인) 각 300,000원 우수상 6인(부분별 2인) 각 200,000원 장려상 15인(부분별 5인) 각 100,000원
- 기타
  - ◇ 첨부하는 보고서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성명, 소속, 학번, 연락처(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강좌명, 담당 교수명]
  - ◇ 선정된 보고서는 글쓰기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우수 보고서 자료집에 수록됩니다.

## 제1회 외국인 학생 대상 글쓰기 공모

- 나의 한국 문화 체험기 -

- 자격 :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 공모주제 : 나의 한국문화 체험기 (A4 7매 내의 자유 형식 / 사진 등 자료 포함 가능)
- 응모 방법 : 글쓰기센터 방문 직접 제출
- 응모 마감 : 2008년 3월 7일 - 2008년 4월 4일
- 심사 결과 발표 : 2008년 4월 21일(홈페이지 및 동대신문)
- 시상부문 : 감상문(독서보고서, 영화비평, 일반기행문) 연구조사보고서(학술답사, 연구조사) 일반보고서(그외 일반)
- 시상내역 : 최우수상 1인 300,000원 우수상 2인 각 200,000원 장려상 5인 각 100,000원
- 기타
  - ◇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성명, 소속, 학번, 연락처(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강좌명, 담당 교수명]
  - ◇ 선정된 글은 글쓰기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추후 자료집에 수록됩니다.

## 제1회 독서와 글쓰기 공모

동국대학교 글쓰기센터에서는 재학생들의 글쓰기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1회 독서와 글쓰기를 공모합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자격 :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 공모 도서
  - 오래된 미래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양희승 옮김, 중앙북스, 2007)
  - 만들어진 신 (리처드 도킨스, 이한운 옮김, 김영사, 2007)
  - 비리데기 (황석영 지음, 창작과비평사, 2007)
  - 에밀 (장 자크 루소, 김중현 옮김, 한길사, 2003)
  - 리퀴유 저서전 (리퀴유, 문학사상사, 1999)
- 응모 형식 : 독서감상문 (A4 5~7매 내의 자유 형식 / 사진 등 자료 포함 가능)
- 응모 방법 : 글쓰기센터 방문 직접 제출
- 응모 마감 : 2008년 3월 7일 - 2008년 4월 4일
- 심사 결과 발표 : 2008년 4월 21일(홈페이지 및 동대신문)
- 시상내역 : 최우수상 1인 300,000원 우수상 3인 각 200,000원 장려상 6인 각 100,000원
- 기타
  - ◇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성명, 소속, 학번, 연락처(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강좌명, 담당 교수명]
  - ◇ 선정된 글은 글쓰기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추후 자료집에 수록됩니다.

## 2008년 1학기 보고서 집중상담프로그램 지원 안내(추가 지원)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에서는 보고서 작성에 자신이 없거나 보고서 작성법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지도해 주는 보고서 집중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기에 제출할 보고서를 대상으로 보고서의 준비 단계에서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글쓰기센터 연구조교들이 3회에 걸쳐 일대일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지원

- 지원 대상 : 2008년 1학기 보고서를 제출하는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 (졸업논문 및 전공과목과 조별과제물은 제외)
- \* 특히 기말보고서를 제출하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선발 인원 : 10명 내외(소정의 상품 지급)

### ■ 신청 및 결과 발표

- 신청 기간 : 2008년 3월 7일 - 2008년 4월 4일
- 신청 방법 : 첨부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heukchun@naver.com) 혹은 방문 제출(신청서는 글쓰기센터 홈페이지(http://writing.dongguk.edu)에서 다운받거나 글쓰기센터를 방문하시면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결과 발표 : 2008년 4월 11일(홈페이지 및 동대신문) (\*4월 15일 오후 4시 설명회가 있습니다.)

## 글쓰기센터 상담프로그램 안내 Counsel Program

프로그램	일반상담프로그램 -학부생 상담 -대학원생 상담(석사과정)	당일방문상담	이메일상담
상담내용	자세한 첨삭 및 상담	간단한 조언	간단한 이메일 코멘트
신청방법	1일전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당일 방문 신청	1일전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 일반상담 프로그램  
미리 상담 신청을 하고 예약된 날짜에 글쓰기센터로 찾아와 상담을 받는다. 프로그램으로는 학부생 상담, 대학원생 상담이 있습니다.

▶ 학부생 상담 : 글을 쓰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나 글을 쓴 이후 자기 글의 문제점을 알고 싶을 때 언제든지 글쓰기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과 관련된 모든 글(발표문, 서평, 기말 보고서 등)이 상담의 대상이 되며, 상담은 글쓰기센터 연구조교들이 담당합니다. 보고서의 계획서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초고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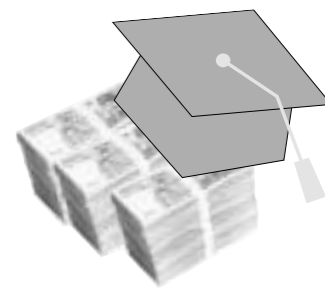
▶ 대학원생 상담 : 글쓰기센터는 대학원생(석사과정)을 위하여 세미나 발표문이나 기말보고서, 학위논문의 개요에 대한 상담을 실시합니다. 상담은 전임연구원이 담당하며, 주로 글을 계획하고 구조를 만드는 문제에 관하여 조언을 제공합니다.

○ 당일방문상담 프로그램(주 2일 8회 4시간 한정)  
미리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글쓰기센터로 바로 방문하여 상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직 보고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구성 단계에서 의문 사항이 있거나 보고서를 쓰는 도중에 의문점이 생겨 그날 바로 빠른 상담을 원할 때는, 사전 신청 절차 없이 언제든지 글쓰기센터로 찾아오면 간단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메일상담 프로그램  
비교적 짧은 글에 대한 간단한 조언을 얻고 싶을 때는 이메일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메일 상담의 경우 학생은 직접 글쓰기센터를 찾아올 필요가 없으며, 이메일을 통해 코멘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글에 대한 자세한 첨삭이나 조언은 불가능하며, 보고서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만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첨삭을 원할 경우, 이메일상담을 받은 후 정식으로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획연재 - 등록금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② 우리대학의 등록금 인상요인 및 재정확보

# 등록금 인상분, 교육 여건 개선 사업에 투입



## 운영비 대폭 삭감·인건비 인상 최소화로 예산 효율성 크게 개선

- 글 쓰는 순서
1. 등록금 문제의 본질
  2. 우리대학의 등록금 인상요인 및 재정확보
  3. 재단과 종단과의 관계 속에서 재정문제 해결방안
  4. 외국대학의 모범사례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자리한 디지털 문명과 세계화 현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새 우리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다. 지구 반대편의 서브프라임 파도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힐러리와 오바마 후보의 모습은 친근한 우리 이웃의 모습이 되었다. K리그에 관심 없는 사람들마저도 열광케 하는 프리미어리그, 2005년 코네티컷 주 소재 예술대학 부학장 Mrs. 서마이스터의 팩스 전송 행위는 2007년 대한민국 여름을 들쭉개 하고 우리대학을 곤경에 빠뜨렸던 사건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우리대학은 이러한 고등교육시장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3~4년 동안 서울캠퍼스 150여명, 경주캠퍼스 140여명(의대포함)에 이르는 우수교수를 대폭 초빙하는 한편, 학생정원을 500여명 이상 감축함으로써 재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것은 곧 고정비용 지출 증가와 재정수입의 감소라는 결과를 불러오게 되어, 대폭적인 재정적 지출과 합

지를 위해 385억원에 이르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설부문에서도 학생과 교원에 쾌적하고 여유로운 교육·연구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투자를 기울이고 있다.

최근 서울캠퍼스에서는 만해관, 학림관, 동국관, 교수회관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하였고 학술관문화관을 증축하였다. 경주캠퍼스는 기숙사를 신축하였고 대학본관이 건설 중에 있다. 올해는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과 정보문화관 증축이 예정되어 있으며, 34,000㎡ 규모의 산학협력관과 약 900명 수용 규모의 기숙사 신축 사업이 시작될 계획에 있다. 또한 전산화분야에서는 지난해 시작하여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 예정인 웹기반 차세대통합정보통신 구축사업에 70억원을 투입하

한 영어강의 능력 평가 대폭 강화 등 우리대학 국제화 부문은 최근 투자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부문이다.

명문대학들의 공통적 특징 가운데 하나는 부자 대학들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수준 높은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적 투자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훌륭한 교수가 우리대학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장학금, 더 좋은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대학 재정 규모나 여건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에 용이하지 않다. 지난해 오영교 총장이 부임하면서 사업개발분부를 신설하여 부동산 매각이나 활용을 통한 수입원 창출과 발전기금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재단에서도 재정확충을 위해 심도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부동산 활용 수입원 창출 노력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회계연도별부 수입과 지출 예산 내역이 공개되고 있는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 등록금 수입이 우리대학 재정 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학교의 지속적인 재원 다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그렇듯 아직도 등록금이 재정에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국내 사립대학의 재정 확보 현실을 감안할 때, 그리고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등록금이 대학재정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런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은 여전하다.

대학에서 배출하는 고급인력들의 최대 수혜자인 기업들은 졸업생들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기 전에 대학들에 대한 재정 지원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고, 국가는 사립대학에 대한 학사간섭에 앞서 국가 고등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당국과 사학재단을 역시 발전기금 확보와 수익사업 발굴을 통해 대학재정 확충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할 것 같다.

금년 들어 오일가격이 1배럴(158.9ℓ)에 100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이맘 때 가격이 60달러 수준임을 감안할 때 70%

항목	2008 예산	2007년 추경예산	증감
등록금 수입	1,315억 6천만 원	1,231억 2천만 원	+ 84억 3천만 원
인건비 지출	707억 5천만 원	669억 2천만 원	+ 41억 3천만 원(교수총임 24명)
관리운영비	162억 3천만 원	180억 5천만 원	- 18억 1천만 원(삭감)
연구학생경비	436억 7천만 원	367억 3천만 원	+ 69억 4천만 원
장학금	332억 원	278억 원	+ 53억 5천만 원
투자와 기타자산지출	54억 9천만 원	49억 9천만 원	+ 5억 원

1. 예산총칙 : 수입-등록금 전년대비 9%인상(한의학과 3%)  
건축기금 인출은 신축, 증축 고려하여 반영  
미 실현 수입 제거하고 실수입으로 편성  
지출-교직원 인건비는 2% 인상(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조정)  
교원인건비는 교원확보를 목표달성을 위한 증원(서울캠퍼스 24명) 반영  
관리운영비는 건축편성  
가계관리자, 이공계 대학원 신입생 장학 등 장학예산 확대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에 따른 정보화사업 예산 반영
2. 시설투자사업 : 중앙도서관 증축 31억 2천만 원  
교양메이커센터 기획 및 설계 8억 9천만 원  
충주로 영상센터 신축설계 12억 원  
산학협력관 및 기숙사 신축 감리비 6억 원  
통합자산 관리 시스템 구축 8억 원  
차세대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19억 9천만 원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게다가 바이오연료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른 세계 곡물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각종 식료품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KDI를 비롯한 국내의 연구기관들의 2008년 물가상승률을 3% 내외로 예상했지만, 실제 물가상승률은 이미 4%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물가 인상은 재학생을 비롯한 대학 모든 구성원들의 교육 및 연구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계산을 반영되어 매일 청구되어질 것이다.

### 수치 비교보다 교육수준 고민

우리대학은 이러한 외부 경제 환경과 고등교육시장의 흐름, 우리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경영목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8학년도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리고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을 최우선순위로 투자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더불어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비용 지출 증가를 최대한 억제했다. 보직교수 기관 활동비와 행정부서운영비를 각각 30%씩 삭감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이 9% 인상되어 고지되었다. 등록금을 내야하는 재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9%에 대한 체감지수는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대학이 더

좋은 교육 및 연구 환경을 갖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9%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울 소재 대학들의 등록금 수준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지방 사립대학들과 비교해도 높지 않은 수준임을 고려하여 재학생들과 학부모님께 깊은 이해를 구하고 싶다.

매년같이 반복되어온 학교와 학생간의 등록금 갈등을 올해는 좀 더 냉정하고 현명하게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풀었으면 한다. 대학은 재학생들에게 9% 이상의 더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과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재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을 9% 이상의 지식과 교육서비스를 받아내는 까다롭고 현명한 동국의 주인이자 고객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상이 몇 퍼센트냐가 아니라, 경쟁대학과 비교하여 우리대학 등록금 수준과 교육환경 및 교육프로그램 수준이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현시대를 살아가는 동국인의 합리적인 자세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토머스 프리드먼의 조언처럼 평행해진 세상을 맞아 우리 모두가 올리브나무를 심기보다는 렉서스를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신기훈  
전략예산팀장

### 대학도 무한 경쟁시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디지털문명과 세계화의 메커니즘에 의해 흘러가듯 변화해 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학(University)들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 같다. 국내 대학들의 홍보책자나 홈페이지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Global' 과 '세계화'이다. 우리대학도 World Wide Dongguk을 표방하고 있다. Global 시대란 말 속에는 승자독식(Winner takes all)과 20:80의 파레토 법칙이 작동하는 '무한경쟁 시대'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모 일간지에서 매년 국내 대학들을 평가하여 그 순위와 결과를 공개한다. 두 기관의 평가 자격과 방법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가 우리들의 고객(학부모) 또는 잠재적 고객(대학입학)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 학부모와 우리대학 졸업생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할 기업인 등에게 활자처럼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는 냉혹한 현실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The Times, 상하이 자이오 통대, US & World Report 등과 같은 기관에서 매년 세계 각국의 대학들에 대한 평가 순위를 발표하고, 대학들의 교육 및 연구역량이 외부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발표 순위에는 이미 국내 몇몇 대학들도 하나 둘 포함되기 시작하고 있다. 바야흐로 국내 대학들에게도 이제 지



올해 신축공사가 시작될 산학협력관·기숙사 조감도

게 구성원들의 고통분담을 수반하는 힘든 작업이다.

### 올해 예산규모 총 2,472억원

우리대학의 2008학년도 재정(예산)규모는 서울캠퍼스 1,597억, 경주캠퍼스 875억원으로 총 2,472억원 수준이다. 지출예산 항목에서는 보수(인건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 707억, 경주 565억, 총 1,272억원으로 전체 지출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시설투자 같은 사업성 투자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복

고 있다. 그동안 노후된 전산 시스템은 수강신청을 비롯한 학사관리에 있어서 재학생들의 불만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르면 올해 2학기, 늦어도 내년 1학기면 재학생들에게 과거와는 크게 차별된 학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화 부문에서는 해외 명문대학들과의 실질적인 교류를 더욱 확대하여,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해외대학으로 떠나고 해외 교류대학 학생들이 본교로 들어오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재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영어강의 트랙제 도입, 전공과정 영어강화 확대, 외국인 교환 초빙 확대 및 신규교원에 대

노동부 대학취업지원기금 확산사업

## [업종·직종별 전문가 릴레이특강]

거역년대에 진로 및 취업병영을 제시하고 고학년에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취업의 결정 기준을 제공하고자 2008년 1학기 '업종·직종별 전문가 릴레이특강'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회 별 일 시	내 용	강사명	소 속	비 고
1회 3/20	〈외국계기업〉 외국계기업 통과하기 - 채용동향 및 입사전략 -	조진석	한국P&G 인사팀 차장	
2회 3/25	〈금융업(은행)〉 금융업에 JOB이라 - 채용동향 및 입사전략 -	박태상	기업은행 인력개발본부 과장	
3회 4/1	〈전기·전자〉 유비쿼터스 시대 취업하기 - 채용동향 및 입사전략 -	공효식	LG전자 인사팀 과장	
4회 5/6	〈백화점〉 유통업분야 취업 엿보기 - 채용동향 및 입사전략 -	백영춘	현대백화점 전호점 지원팀장	동문
5회 5/13	〈아나운서〉 아나운서 취업의 이모저모 - 채용동향 및 입사전략 -	한상권	KBS 아나운서	동문
6회 5/20	〈공기업〉 공기업 바늘구멍 통과하기 - 채용동향 및 입사전략 -	이주석	한국전력공사 인사팀 과장	
7회 5/27	〈직업탐구〉 교사 "사립학교 취업 성공하기!"	황영남	인천심리상담고등학교 교장	동문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

### 성공 취업을 위한 2008년 1차 '면접스킬 마스터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안내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2008년 1차 '면접스킬 마스터 프로그램'을 시행함을 안내하니 취업준비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목 적
  - 유형별, 단계별 면접훈련을 통해 다양한 면접과정의 이해
  - 면접 시뮬레이션과 Role Play를 통해 면접스킬 강화와 자신감 획득
  - 유형별 면접실습을 통한 본인의 능력과약과 효과적인 면접 전략 수립
2. 교육내용
  - 가. 교육형태 : 1일(8시간) 면접스킬 집중교육
  - 나. 교육일정 및 선발인원

구 분	차 수	일 시	인 원	비 고
2008-1학기	1 차	2008. 3. 29(토) 09:00 ~ 18:00	50명	

다. 교육장소 : 본교 다학관세미나실 및 대회의실  
라. 프로그램 및 강사

시 간	프로그램	내 용	진행 및 강사
08:40 ~ 09:00	등록	출석체크 및 교재 배부	취업지원센터
09:00 ~ 10:00	면접 특강	면접의 이해 및 면접대비 요령/면접스킬	
10:00 ~ 12:00	유형별 면접실습 I (면접 시뮬레이션(실습+코칭) - 면접 Role Play)	면접 시뮬레이션(실습+코칭) - 면접 Role Play 및 면접훈련	전문강사
12:00 ~ 13:00	점 심	심학원 상담	
13:00 ~ 15:00	유형별 면접실습 II (면접 시뮬레이션(실습+코칭) - 면접 Role Play)	면접 시뮬레이션(실습+코칭) - 면접 Role Play 및 면접훈련	
15:00 ~ 18:00	인사담당	- 실전면접 + 피드백	인사 담당
18:00 ~ 18:20	실문조사	- 집단, 토론, 영어, 프리젠테이션 면접 프로그램 및 강사에 대한 설문조사	취업지원센터
3. 모집대상 및 모집기간
  - 가. 모집대상 : 3, 4학년 및 기졸업자
  - 나. 모집기간 : 2008. 3. 13(목) ~ 3. 19(수)
  - ※ 선발인원(50명)의 2배수(100명)까지 선착순 접수
4. 신청장소 : 취업지원센터(본관 2층)
5.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별첨 소정양식) ※ 신청(접수)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6. 선발방법 : 접수순서로 선발예정
7. 선발자 명단 공고 : 2008. 3. 24(월)이전에 홈페이지 게재
8. 기타사항 : 교육비 전액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취업지원센터 ☎2260-3054, 3055)로 문의바랍니다.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

## 상반기 삼성계열 취업대비 직무적성검사 영역별 특강 실시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에서는 2008년 상반기 삼성SSAT 및 대기업 직무적성검사를 대비하여 재학생/졸업생에게 직무적성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출제 유형 및 기출문제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주)에듀스에 의뢰하여 직무적성검사의 영역별 특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번호	구 분	내 용			
1	강의명	삼성SSAT 및 대기업 직무적성검사 영역별 특강			
2	일시 및 장소	회차	날 짜	시 간	강 의 내 용
		1회	3월 12일(수)	17:00 ~ 19:30	수리영역, 추리영역
		2회	3월 13일(목)	17:00 ~ 19:00	언어영역, 공간지각영역
		3회	3월 14일(금)	17:00 ~ 19:00	시사상식, 인성검사/ 상황판단 영역
3	대상	취업준비 중인 재학생/졸업생			
4	교육장소	본관 강당			
5	접수일시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2008. 2. 29(금) 10:30 ~			
6	제한사항	접수 후 불참자는 불참사유서 제출 미제출시 차후 기회 제한 (매 학기 1회 실시예정임)			
7	기타문의사항	취업지원센터(교내 : 3054), 이메일(job@dongguk.edu)로 연락요망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

로미오와 줄리엣을 번안한 해오라기와 솔피

# 가장 셰익스피어다운 원작에 우리 전통을 입히다



해오라기와 솔피 공연 중 결투장면



해오라기와 솔피 포스터

“옛날 옛적 한 마을에 오랜 원한을 품은 두 가문이 있었는데... 비극적인 러브 스토리...”

이 소설만 들어도 머리에 ‘번쩍’ 하고 떠오른 작품이 있을 것이다. 바로 원수 집안 청춘 남녀의 사랑이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되는 ‘로미오와 줄리엣’이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을 것이다. ‘옛날 옛적?’, ‘한 마을?’ 이것은 우리 전통 이야기에서 나오는 멘트이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한국판이라고 하면 쉽게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 다시 태어난 로미오와 줄리엣

작품의 줄거리는 이렇다. 옛날 옛적 한 마을에 오랜 원한을 품은 두 가문이 있었는데 술 가문과 해 가문이다. 해 가문의 해오라기와 술 가문의 솔피는 술 가문이 연 백중놀이에서 한 눈에 서로에게 반하게 된다. 하지만 솔피에게는 명문가 자제인 천록이라는 약혼자가 있었다. 결국 원한의 불씨에 휘말려 세 가문의 비극적인 파멸에 이르게 된다. ‘해오라기’와 ‘솔피’의 사랑도 애뜻하지만 슬픈 외사랑을 시작으로 끝내 ‘해오라기’에게 죽임을 당하는 ‘천록’ 도령을 보고 있노라면 한없이 사랑을 주었

지만 받을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에 마음이 아파 온다.

로미오는 해 가문의 해오라기로, 줄리엣은 술 가문의 솔피로 연극의 흐름은 판소리와 택견이 이끌어간다.

## 원작 안에 한국적 묘미

가야금 가락이 흐른다. 거문고 가락도 흐른다. 거문고와 가야금의 가락만으로 배경음악은 극에 맞게 흘러간다. 가끔 맛있다 싶으면 ‘솔피’ 유모의 북소리와 구성진 노랫 자락이 첨가되기도 한다.

‘이크, 예크, 이크’ 해 가문과 술가문의 싸움에는 다소 생소한 구호와 함께 원작의 칼 싸움이 부채를 무기로 한 택견의 몸짓으로 대체된다. 좁은 소극장 곳곳을 누비는 택견의 몸짓은 끊어질 듯 하면서 다시 이어진다. 거문고 가락의 ‘두둥’ 소리와 함께 부채는 날카로운 호선을 그리며 한 등장인물의 죽음을 알린다. 순간 죽은 듯 숨이 죽어드는 관객석. 점점 두 가문의 비극적 파멸이 다가올수록 배우들의 긴장감은 두 배가 된다.

이 작품은 미국 옥스퍼드 마이애미 대학 연극학과에서 25년간 교수로 재직하면서 셰익스피어작품을 연구해온

하워드 블레닝 교수가 연출을 맡았다. 연희단거리패의 김미숙 씨가 공동 연출자로 ‘베를린 개풍이’에 이은 해외연출가 프로젝트 두 번째 작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 셰익스피어의 구조를 살리다

김미숙씨는 “해오라기와 솔피는 셰익스피어를 한국적으로 각색한 작품이지만 셰익스피어의 대본의 원형을 그대로 사용했다”며 “가장 한국적이지만 유럽의 셰익스피어의 구조에 가장 충실한 공연이다”라고 말했다. 이 작품에서는 재미를 위해 두 주인공의 러브스토리로 원작을 재구성하는 일반 연극과는 다른 차별화된 특징을 엿 볼 수 있다.

실제로 ‘해오라기와 솔피’는 가장 중요한 ‘로미오와 줄리엣’의 여러 버전 중 셰익스피어 사후의 대판을 기초로 시간과 장소를 옛 한반도로 각색하여 원형 ‘로미오와 줄리엣’의 잃어버린 구조를 되찾았다. 영어로 만들어진 어떤 버전보다 더 셰익스피어의 의도에 다가갔다고 평가받는다.

## 원작에서 찾은 페리스와 천록

원작에서는 우리가 익숙했던 몬테규

집안과 캐플릿 집안 이외에 줄리엣의 원래 약혼자인 ‘페리스’가 등장한다. 하지만 일반 연극은 극중 재미를 위해 어떠한 연극에서도 페리스를 등장시키지 않는다. 대중적인 극을 위해 편집의 희생자였던 ‘페리스’를 ‘해오라기와 솔피’에서는 ‘천록’이라는 등장인물을 통해 볼 수 있다. 천록은 원수 집안인 두 가문 이외에 이들의 원한에 얽혀드는 또 다른 가문의 자재로 드러난다.

기존에 쏟아지는 셰익스피어 원작의 연극, 뮤지컬과는 다른 셰익스피어 원작의 정통 구조를 보고 싶다면 ‘해오라기와 솔피’를 한번 보는 것은 어떨까. 원작에 가장 가까운 연극이라고 해서 지루하다고 생각하면 금물이다. 왜냐하면 탄탄한 셰익스피어의 구조 밑에는 우리 민족만의 신명나는 소리와 몸짓이 있으니까 말이다.

이승이 기자  
thispaper@dongguk.edu



## 그림으로 본 인도이야기

〈1〉 야크와 목동

“왜 이렇게 추운데 높은 곳에서 살아요? ... 내려가서 살자고 할까요?” 인도 안의 또 하나의 나라 시킵 주의 광복. 그 곳 해발 3850m 고지에 있는 송고 호수를 보기 위해 동트기 전 우리 일행은 짐차에 올랐다. 일행 중 한 명이 히말라야의 추운 겨울 연기도 피어 오르지 않는 나지막이 들서 등성 박힌 집들을 보며 그렇게 걱정 섞인 농담을 했다. 세 시간이 오르막 산길을 달려 도착한 송고 호수는 아침의 조용한 정적속에 동물 울음 소리만 메아리처럼 들려 왔다.

나중에서야 우리는 그 동물 울음 소리가 호수위의 얼음 깨지는 소리임을 알았다. 도착하고 한 시간쯤 지나서 야크를 몰고 한 청년이 호숫가를 한 바퀴 도는데 100루피라고 말하며 다가온다. 야크위에 올라 타고 호숫가를 산책 한 후 잠시동안 청년과 야크를 그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크의 이빨 가는 소리가 호수의 얼음 깨지는 소리와 닮아 있다. 하늘 아래 첫 동네에서 새벽을 깨우며 들은 소리이다. 사람과 야크, 그리고 하늘과 바람, 호수가 나누어지지 않는 땅. 인도에서의 첫 걸음은 그렇게 시작됐다.

김 상 남

애니메이션 영화감독, 동국대 지리교육과 졸업  
한국 영화카데미 애니메이션 전공과정 졸업  
2000년 체코 자그레브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학생 경쟁부문 특별상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일곱살> <달빛 프로젝트> <갯벌야 갯벌야>  
전주대, 중앙대 겸사



## 살아 숨쉬는 영국 연수기

### ① 꼼꼼한 사전 준비가 연수효과를 높인다

남들만큼 절실하지도, 마냥 들뜨지도 않았다. 오히려 세태에 휩쓸리는 듯한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대학원 진학과 같은 유학이면 모를까, 호주 배낭여행 때 본 한국 어학 연수생들의 모습에 인상을 찌푸렸던 내가, 바로 그 어학연수 준비를 한다는 게 참 모순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었다. 가셔도 즐겁게 열심히 생활했다. 그렇게 1년 남짓한 시간이 지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지금, 지난 2007년 한 해는 내게 들도 없이 소중한 인생경험이다.

2006년 가을, 졸업 전 한 학기를 남겨둔 채 휴학을 하고 취업 대비 영어공부를 하면

서, 현재 나의 위치와 미래에 대해 무척 고민했다. 그렇게 오랜 갈등 속에서 결정한 것이 어학연수였다. 내가 마음먹은 것이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이었다.

국가는 영국으로 결정했다. 부모님께서는 자연이 있는 미국 동부 쪽을 권하셨지만, 학비와 생활비, 체류비 등을 따져 봤을 때 영국 지방도시와 큰 차이가 없었다. 결국 평소 선호도였다. 영국의 역사, 나아가 유럽 역사와 문화에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던 터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 유학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홈스테이를 주로 한다는 점, 다리만 튼튼하면 웬만한 곳은 걸어 다닐 수 있다

는 점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공부할 도시는 잉글랜드 북서부 체셔(Cheshire) 주의 주도 ‘체스터(Chester)’라는 인구 10만 명의 작은 도시로 정했다. 도시 역사가 2천년이라는 것이 매력적이었다. 가까이 우리와 친숙한 맨체스터와 리버풀이 있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했다. 마음만 먹으면 대도시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주변에서 역량이 너무 강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나는 거센 역양이라도 그들만큼 구사해오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학교 입학허가 신청과 홈스테이 선정, 비자발급 등 까다로운 서류작업들은 대행사

에서 해주었다.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제출하고, 세부적인 의사만 전달하면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

실질적으로 내가 신경을 쓰고 준비한 것은 그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사전 공부 및 영어공부이다. 아무래도 배경지식을 쌓는다면 적응 시간도 빨라질 것이었다. 또한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을 키우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했다.

배경지식은 주로 책을 통해 습득했다. 신사와 율리건이 공존하는 사회, 하루에 세계 질을 다 경험할 수 있는 변화무쌍한 날씨, 그램(g)과 킬로그램(kg) 대신 온스(oz.)와 파

운드(pound)를 사용하는 영국인들에 대해 읽었다.

영어공부는 회화중심의 듣고 말하기에 집중했다. 12월 한 달 간,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온 친하게 지내는 동생과 매일 한 1대 1 회화 스터디는 정말 큰 도움이었다. 일기쓰기를 통한 작문연습과 관용어 암기 및 사용도 병행했다.

이렇게 3개월간의 준비를 마치고 2007년 1월 6일, 마침내 영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시베리아의 하얀 벌판과 함께, 나의 새로운 도전은 이제 막 발을 내딛는 참이었다.

최민희(사과대 신변4)

## 외국인학생 도우미 모집

우리대학 학부에는 약 3000여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재학중에 있습니다. 또한 27명의 외국자매대학 교환학생이 방문한 상태이며, 한국어학당에는 2000여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학부입학의 준비 과정인 한국어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시대를 맞아 대학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등장한 외국인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한국어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학생서비스팀과 한국어교육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다음과 같이 외국인학생 도우미제도를 시행합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희망합니다.

1. 활동기간 : 2008학년도 (3. 17 ~ 12. 31)

2. 모집인원 : 약 100명

3. 혜택

- 가. 활동에 대한 봉사시간 인정
- 나. 학생서비스팀 주최 해외프로그램 대상자 선발 시 가산점 부여
- 다. 신분증 및 유니폼 제공
- 라. 도우미 활동증명서 발급
- 마. 활동 공간(방) 제공

4. 선발 절차

- 가. 접수 : 2008. 3. 6(목) ~ 13(목)  
홈페이지 접수(온라인)  
학생서비스팀/한국어학당 방문 접수 가능
- 나. 면접 : 2008. 3. 14(금) 학생서비스팀 회의실 16시
- 다. 발표 : 2008. 3. 17(월) 13시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5. 일정

프로그램	대 상	개 요	시 기
교육	도우미 전체	사전교육	3월 중
간담회	외국인-도우미 전체	첫만남-팀구성	3월 중
명소투어	외국인-도우미 전체(회망자)	고교, 민속촌, 인사동, 삼청동외	3월 중
대화도우미 운영	외국인-도우미 전체(회망자)	어학연수생과 1:1 대화도우미	년 4학기 운영
MT	외국인-도우미 전체(회망자)	참가자들이 원하는 장소	4월 중(고사 후)
등반대회	외국인-도우미 전체(회망자)	참가자들이 원하는 산	4월 중
명찰순례	외국인-도우미 전체(회망자)	1박2일 산사체험	5월 중
체육대회	외국인-도우미 전체	한·중·일 국가대항전	5월 중
경주방문	외국인-도우미 전체(회망자)	속박·경주캠 기숙사	하계방학
해외자매대학방문	외국인-도우미 전체(선발)	활동우수자 해외방문	하계방학
한중일 학술토론	팀별(팀총시행) 참가	우수팀 시상	2학기 예정

\* 위 행사 외에도 참가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대화도우미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연 4회의 기간 중 한 학기를 선택하여 각 학기당 30시간 봉사(교육시간 제외) 수행

## 정각원 토요일 토요법회 및 불교 강연회 안내

현직 불교대학 교수들이 부처님 탄생에서부터 현대불교의 세계적 흐름까지 불교에 대한 안목을 키워드리며, 수행자 스님들의 수행법과 살아있는 생활법문을 통해 여러분의 삶은 즐겁고 향기롭게 됩니다.

- 시 간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 장 소 : 서울캠퍼스 정각원 법당
- 대 상 : 일반인 및 동국 가족
- 법회 일정

월	일	주 제	강·법사	비 고
3	8(토)	불교의 이해와 신령	중호 스님	정각원장
	15(토)	불교와 경제	우승택	삼성증권 In Honors, 호철신라지점장
	22(토)	관음신앙의 성립과 실천	법산 스님	전 불교대학원장
4	29(토)	위해서나 수행의 이해	미가 스님	천안 인일사 주지
	5(토)	생활법회	해담 스님	광주 각희사 회주
	12(토)	반이사상의 성립과 전개	김성철	불교문화대학 교수
5	19(토)	선재조의 심신수련	안도 스님	영산 금강사 주지
	26(토)	성지순례	김창균	예술대학 교수
	3(토)	생활법회	영애 스님	동국대학교 이사장
6	10(토)	내 인의 부처(여래장사상)	중호 스님	정각원장
	17(토)	인도불교의 역사	김미숙	불교대학 겸사
	24(토)	진언수행의 이해	해담 정사	수원 유가심인당 주교
7	31(토)	불교와 문학	최순열	동국대학교 부총장
	7(토)	생활법회	심산 스님	부산 흥법사 주지
	14(토)	대승불교의 성립과 전개	계환 스님	불교대학 교수
8	21(토)	성지순례	윤영수	기해민화박물관장
	28(토)	법화/열반 사상의 이해	지창규	불교대학 교수
	5(토)	생활법회	현각 스님	원주 성불사 주지
9	12(토)	종관사상의 구조	김성철	불교문화대학 교수
	19(토)	아미타 신앙의 이해	선홍 스님	음성 용운사 주지
	26(토)	불교와 경영	오영교	동국대학교 총장
10	9(토)	생활법회	정안 스님	조계종 총회위원장
	16(토)	법구경의 기본법	김재영	청보리회 지도법사
	23(토)	티벳불교의 역사	안성두	금강대학교 교수
30(토)	불교음악의 이해	능화 스님	태고종 문화부장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정각원

## 2008년 3월 개강법회 안내

정각원에서는 2008년 3월 개강법회를 다음과 같이 병행하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일 시 : 불기 2552(2008)년 3월 18일(화) 오후 5시
2. 장 소 : 정각원 법당
3. 대 상 : 교·직원, 학생, 일반인
4. 초청법사 : 해국 큰스님(석종사 금봉선원장)

\* 법회 시간 조정 : 수업 또는 업무시간의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법회시간을 오후 4시에 5시로 조정합니다

## 정각원

## 교양수학 튜터링 안내

수학과에서는 교양수학의 효율적인 이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튜터링을 운영하오니 재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기간 : 2008. 03. 03 ~ 06. 20
- 일시 : 월~금 오후 2~5시
- 장소 : 과학관 109호 교양수학 개인교습실
- 문의 : 수학과사무실 (02-2260-8712)

## 수 학 과

### 달하나 천강에



김상현  
문과대학  
사학과 교수

망설이며 창가에 서 있습니다. 봄이 온 것 같아서 문을 열려다 말고 아직은 찬바람 걱정에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문도 많습니니다. 성문과 대문과 방문과 창문이 있고, 남문과 북문이 있으며, 앞문과 뒷문도 있고, 불문(佛門)이

### 창가에 서서

나 법문(法門)과 같은 무형의 문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도 있습니다. 모든 문은 경계에 있으면서도 그 경계를 허무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문은 여닫게 되어 있고, 사람들은 그 문을 통해서 드나듭니다. 물론 바람도 왕래합니다. 문은 안으로 들어갈 수도 밖을 향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원효는 말했습니다. 들어감이란 자리(自體)를, 그리고 나간다는 것은 이타(利他)를 의미한다고. 문은 열어야 하지만, 그러나 마냥 열어 놓을 수만 없습니다. 도둑 들지 않게 단단히 잠가야 하고, 파리나 모기 날라가지 못하도록 방충망이라도 달아야 하고, 흠뻑 지 새어들지 않도록 틈새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가 오면 마음의 문까지도 열어야 합니다.

문을 열거나 개방하면 다 좋은 것인 줄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열린 세상 열겠다던 사람들이 만든 당이었습니다. 옳고 그당 만들더니, 그 정치꾼들 열린 문으로 다 나가버리고 어느새 그 간판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 당 집권 시에 개방했던 승례문, 그 멋진 누각에는 노숙자들이 찾아들었고, 무례한 그들의 잠자리가 되고 술자리가 되어주던 국보 1호는 급기야 아란의 손에 의해 불태워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존심도 무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니다. 분명 개방만이 좋은 것은 아닌 가 봅니다. 아직도 연구실 창가에 서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연히 서 있습니다. 신정아, 사필귀정, 철 밭통, 강의평가 공개,

고객 만족, 상품, 로스쿨, 등등의 단어들, 귀에 쟁쟁한 이 단어들의 의미조차 쉽게 이해되지 않는, 아 그래서 나는 속절없이 흘러가 버린 세월에 당황해 하면서 멍청하게 서 있습니다. 교단에 선지 30년 가까운 세월, 그래도 나는 '상품'이라도 되었다는 자부심(?)으로 어지럽습니다. '상품'은 공개했지만, 정작 공개가 필요한 것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사실 교수들의 거의 모든 것은 일찍부터 공개되어 있었습니니다. 연구실도 강의실도, 그리고 연구 결과도, 그리고 철 밭통으로 밥 먹는 교수는 물론 없습니다. 차라리 연구실에서 배가 고플지언정, 찬바람에 감기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위로 마음의 문만은 닫을 수가 없습니다. 창가에 서서 환하게 꽃피어날 봄날을 기다립니다. 올 봄에는 황사도 많지만, 그리고 창문 밖에는 웬지 먼지도 많지만, 그래도 추위가 풀리면 창문을 열 생각입니다. 멋진 세상을 향해.

### 보리소

### 풀 한포기를 위해

스님 몇 명이 황야를 지나다가 도적떼를 만났다. 도적들은 빼앗을 것이 없자 옷을 벗겨갔다. 도적들은 떠나면서 '그냥 놔두면 관가에 알리지 모르니 죽어 버리자'고 했다. 그때 한 도적이 나서며 이렇게 말했다. "생명을 해치면 지옥에 떨어진다 했다. 수행자는 풀 한포기도 해치지 않는다 했으니 풀로 묶어놓고 도망가자." 풀에 묶인 스님들은 한낮에는 뜨거운 햇볕과 갈증과 파리에 시달리고, 밤이면 모기와 여우와 울새미들의 성화에 시달렸다. 그러나 풀을 빼면 풀이 죽겠고, 풀이 죽으면 계를 파할 것 같으므로 차라리 신명을 버릴지라도 불계(佛戒)를 지키기로 했다. 그때 마침 국왕이 사냥하러 왔다가 이 광경을 보았다. 사연을 물으니 스님들의 대답은 이러했다. "한포기의 풀에도 수많은 생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은 것입니다." 왕은 풀 한포기를 위해 목숨을 버릴 뻔한 스님들을 모셔가서 스승으로 삼았다고 한다. '대장엄론(大莊嚴論)' 권3에 나오는 이 예피소드는 불교의 모든 생명

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종교인가를 말해준다. 우리는 흔히 그까짓 풀 한포기가 무엇이 그리 소중한가 하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봄마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황사바람은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준다. 풍요롭고 생태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존재다. 거름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모든 자연과 생명은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이걸 모르면 바보다. 이런 관점에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경부대운하 건설계획을 보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 자연은 인간만의 것도, 쓰고 버리면 그만인 일회용품도 아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의 것이다. 우리는 그저 잠시 빌려 쓰고 있는 손님이다. 그런 우리가 눈앞의 욕심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한다면, 돌아올 것은 대재앙 밖에는 없다. 어찌 두렵지 아니하랴. 초계(草繫)비구들처럼 '풀에 묶이는 불판'을 감수할 줄 아는 것이 참다운 지혜다.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위원

### 대들의 난

### 술 권하는(?) 선배



△저 결핵했습니다  
△후암... 너네 때도 먹기 싫단거 왜 우리한테?=  
△그러면 거 없다- 딱치고 먹는거다  
△술취술취술취  
△남하그만  
△함께원샷  
△아싸감사  
△반사  
△술 언제 사줄거여?  
△생수로 한잔 시원~하게 따라 주십쇼 =  
△나 토하면 책임져-ㅏ  
△술은 기본 좋도록 마실 때 의미가 있는 것이 먹고 죽이는게 의미가 있는게 아니죠  
△선배님아 같이 표면장력 한번만 띄우-...  
△04학년 정도의.....왜 슬프지  
△그럼 선배도 원샷!  
△술을 잘 마시는 것'과 '술을 즐기는 것'은 달라요 선배님 ^^  
△술 권하는 선배 있을때가 좋은거다  
△함께 고고싱  
△기본 좋게 즐길 수 있을 만큼만 마셔야지요. 과유불급입니다.  
△후배는 원샷. 선배는 키스  
△졸.. 작년부터 왕고다...;  
△내가 술을 권하는 타입이라 패스

### 동학은 시골벽적

### 군복무자 포괄적 보상 방안이 더 중요

군 가산점을 둘러싸고, 최근까지 지루하게 그리고 소모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논쟁을 보면 진중권이 일전에 지적한 바처럼, 병역을 마친 한국 남자의 정체성이 아직까지 군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한다. 이 땅의 수많은 한국 남성들이 병역으로 인한 직 간접적인 피해가 있었음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상이나 처우가 형편없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보상으로서 군 가산점을 지지하는 것은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군 가산점을 지지하는 예비역 남성들의 절대 다수가 공무

원이나 공공기관 업무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면 군 가산점은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이 아닌, 특정 남성을 위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그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예비역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거나, 현재 이러한 형태로 예비역의 불만이 표출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징병제로 인한 피해, 그리고 "군대 가서 머리 썩히는" 상황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여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남녀 모두 불만이 해소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동학은 시골벽적'은 논란이 되는 주제에 대해 독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곳이다. 이번주는 군복무자에 대한 보상방안으로 무엇이 적합한지 들어보았다.

백번 양보해서 남북 대치의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징병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그 처우와 보상에 대해서 보다 확실한 형태의 그것을 당당히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일부 여성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예비역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사회 복지혜택 등의 방안은 다소 미약하지만 군 가산점보다는 절대 다수의 예비역들에게 현실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인 반면, 특정 남성 이외의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방안이기도 하다. 그러한 태도로 예비역을 비롯한 여성계, 정부 등이 모두가 합당하며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군 가산점에 대한 결론 없는 무의미한 논쟁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진욱(문과대 국문4)

### 남여 성대결식 변질은 피해야

군가산점제도의 도입이 세삼스럽게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것은 군복무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가산점이, 취업시 부여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가 취업당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극심한 경쟁사회의 상황과 맞닿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취업난이 오늘날과 비교해 극심하지 않던 수년전을 돌이켜본다면,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논란은 비단, 사람들의 평등의식이 성장한 결과에 따른 논쟁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차치해두고, 쟁점을 살펴보면 우리는 선부른 문제접근이 자칫 오류를 범할 소지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군가산점 제도의 찬반에 대한 입장은 각각의 사회이직집단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변론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판정은

현재 법조계에서 하고 있다. 많은 남성 예비역들은 군가산점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고, 여성단체 등에서는 이를 반대하며 서로 다른 입장을 두고, 절정을 펼치는 장면을 언론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의 차이를 나타내는 대표들이 남성과 여성으로 고착화되어 각종 매체에 등장하면서 군가산점 문제가 자칫 남·녀간 성대결전으로 변질되거나 왜곡되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산점을 찬성하는 입장의 대표인 남성이, 가산점은 역차별을 주도한다는 입장은 여성이 대변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자주 노출된 것이 많은 원인들 중 하나인 것이다. 물론 상당수의 남자가 군가산점을 옹호하는 입장이고, 여성부를 비롯한 상당수의

여성단체들이 이를 반대하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대립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실상, 군가산점 문제는 남자는 가산점을 주고 여자는 가산점을 주지 않는 문제가 아니다. 남성중에서도 상당수의 인원이 군복무에 있어서 면제를 받고, 반면에 여성의 경우 오히려 지원을 해서 복무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우 남자일 경우에도 군면제를 받는 경우에는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받지 못하고, 여자의 경우우라도 군복무를 마치면 가산점을 부여받게 된다. 이것은 군가산점이 남녀불평등 혹은 역차별의 문제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군가산점은 컴퓨터 자격증이나 해외 봉사시 부여되는 가산점의 일종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박병탁(사범대 국교3)

### 지나오 동대신문을 읽고

###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소식 전달

동대신문 제1454호 1면에는 강의 평가 공개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뉴스를 통하여 우리학교가 국내 최초로 교수 강의평가 공개를 실시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자세한 과정이나 세부사항은 미처 모르고 있었는데 동대신문을 통하여 그러한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었다. 학교 주변 상점들의 담합 의혹에 대한 기사는 앞으로 여러 학내 커뮤니티 등을 통해 거론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종종 인근 상점가를 이용하면서 대인상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고 또 실사 오문라고 하더라도 그냥 지나쳤었는데, 상점들의 카르텔이 가격인상의 배경이라는 사실이 놀라웠다. 특히나 개강 초에는 이런저런 모임을 많이 가지게 되고 술자리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담합에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번을 계기로 하여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부당한 가격인상을 막을 수 있었으면 한다. 특집으로는 제1기 동국 108리더스의 라오스 해외봉사 소식이 실렸

다. 사진과 함께 활동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되었다. 지금 학교에서 제2기 동국 108리더스를 모집하는 기간이니 만큼 리더스의 활동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예비 리더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었을 듯 하다. 대학등록금에 대한 기획기사는 등록금 문제에 대한 분석을 아는 데 도움이 되었다. 단순히 등록금이 비싸다는 불멘소리로 한했고 등록금 인상의 사회구조적 배경이나 원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서 문제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이론적인 접근을 다른 이번 기사가 특히나 도움이 되었다. 이번 학기에도 여지없이 등록금은 인상되었고 총학생회나 여러 곳에서 그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 예상된다. 등록금 문제에 대한 동대신문의 이번 기획이 그러한 과정속에서 학내에 합리적이고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이광교 (사과대 정외4·매체비평연구회)

### 2008년 띠와 열정의 동아리 박람회

1. 행사일정 : 3월 17일(월) ~ 3월 21일(금)  
2. 전시일정 : 3월 19일(수) 팔정도 - 그리고.. 그림...  
3. 공연일정

날 짜	3월 17일 (월)	3월 18일 (화)	3월 19일 (수)
동아리	SSID	ODC	SSID AJAX OPUS
장소 및 시간	학생회관 6시	혜화관 12시~12시30분 팔정도 3시~3시30분	학생회관 6시 혜화관 12시~1시 순화공연

<3월 21일(금) 팔정도 공연>

공연시간	공연동아리
11:00 ~ 11:20	OPUS
11:20 ~ 11:40	현여울
11:40 ~ 12:00	마식
12:00 ~ 12:20	SSID
12:20 ~ 12:40	몽계구름
12:40 ~ 13:00	ODC
13:00 ~ 13:20	AJAX
13:20 ~ 13:40	Fearless Dawn

동아리연합회

### 2008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event

#### 생활협동조합 가입

1. 조합원 가입시 선착순 1,500분에게 T-money가 내장된 조합원카드를 2,500원 충전하여 무료로 드립니다.
2. 행사기간내 조합원카드를 결제시 생협 전매장 5% 할인
3. 가입시 선물제공

※ 카드 사용장소 : 식당, 매점, (서점, 문구점은 4월부턴 사용가능)  
가입처 : 생협사무국(혜화관1층) 또는 행사접수처

#### 생협과 KT 와이브로의 특별행사

1. KT WIBRO 가입시 USB모뎀 무료제공
2. 개통후 1개월 무료지원
3. 동국대학교내 사용자 데이터량에 상관없이 무제한 사용가능

※ 조합원을 위한 특별혜택

1. 노트북 대여(일일 사용료: 2,000 원)  
노트북모뎀 : 제품사양 참조 / 정기대여도 가능합니다

※ 본 행사혜택은 기존 재학생에게도 동일 적용되며, 01 학번까지는 조합원카드를 무료로 드립니다.

후원 : 동국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후원 : [후원]스마트카드, [후원]KT  
문의 : 02-2260-8946~53 http://dgucop.dongguk.ac.kr

### 제6회 전통사찰음식조리강좌 수강생모집

1. 강 사 : 선재스님(가정교육과 객원교수)
2. 교육기간 : 3/18~5/27(10회) 매주 화요일 오후2시~5시  
학림관 1층 조리실습실
3. 참가대상 : 전 동국인(40명) - 선착순으로 접수함.
4. 재 료 비 : 10만원
5. 접수기간 : 2007. 3. 17 (일)까지 선착순 30명
6. 접수방법 : 전화·방문접수(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7. 문 의 : 2260-8853~5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정교육과

### White Day Love Cookie 만들기

1. 일 시 : 3월 13일(목) 오후 3시~5시
2. 모 집 : 선착순 30명(남학생 우대)
3. 장 소 : 학림관 1층 조리 실습실
4. 참가신청 : 전화 또는 방문신청 (2260-8853)
5. 참 가 비 : 만원(재료비, 포장용품 포함)

학생경력개발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 금주의 식단

등록금	
월 (3/10)	장터국밥(2000)/중국식부음밥(2000)/고구마튀김(3000)
화 (3/11)	육개장(2000)/짜장불고기덮밥(2000)/치킨가스(2500)
수 (3/12)	삼선전구이(2000)/베이컨볶음밥(2000)/새우가스(2500)
목 (3/13)	설렁탕(2000)/치킨소스덮밥(2000)/주제돈가스(3000)
금 (3/14)	쇠고기해장국(2000)/오징어덮밥(2000)/치즈돈가스(3000)

상록원	
월 (3/10)	삼선전구이(2000)/카레라이스(2000)/최고기국밥(2500)
화 (3/11)	돈육매추리갈조림(2000)/매운오삼부음밥(2000)/설렁탕(2500)
수 (3/12)	삼치데리야기(2000)/탕골고기밥(2500)/최고기당면볶음덮밥(2000)
목 (3/13)	제육볶음(2000)/중국식부음밥(2000)/우렁참장채(2500)
금 (3/14)	햄구이(2000)/새싹참치캔비빔밥(2200)/일탕(3000)

아리수	
월 (3/10)	햄김치찌개(2000)/참치캔비빔밥(2000)
화 (3/11)	우렁참장채(2000)/제육김치덮밥(2000)
수 (3/12)	육개장(2000)/쇠고기카레라이스(2000)
목 (3/13)	돈육백우거지탕(2000)/불고기덮밥(2000)
금 (3/14)	비치리순두부찌개(2000)/오징어삼추부음밥(2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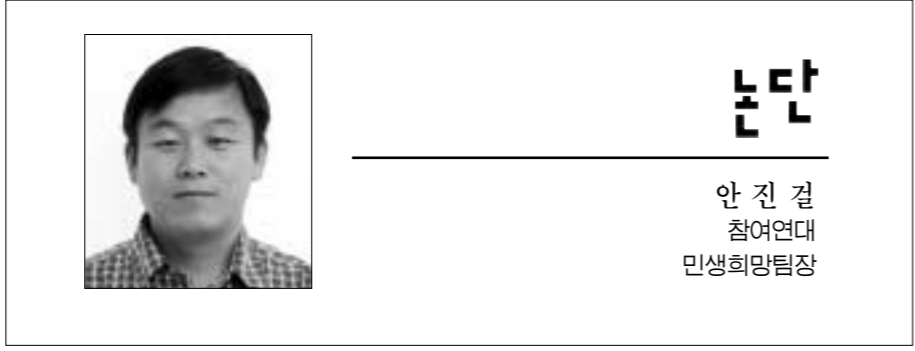
새정부의 시장주의적 교육관 무엇이 문제인가

‘공정한 출발’ 보장할 수 있는 정책 필요

우리나라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가장 부러운 것은 아마도 유럽의 대학 이야기일 것이다. 등록금이 매우 싸거나 아예 없기 때문이다. 아, 어떻게 이게 가능한 말인가... 2008년 등록금 1천만 원 시대, 등록금 폭등 사태의 한 복판에 있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니 부러움과 고통스러움의 탄식이 절로 터져 나온다. 2008년 서울 지역 K대 의대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까지 포함한 연간 등록금이 1천 4백만 원에 이르고 있고, 로스쿨을 포함해 곧 있으면 등록금만 '2천만 원 시대'가 우울하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저항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현실이 되고야 말 것이다.

지금 한국의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 숫자는 300만 명에 달하고 있어 몇 집 건너면 대학생들이 있고, 몇 집 건너면 곧 자제가 대학생이 되게 돼 있다. 대학생 300만 명과 곧 대학생이 될 이들, 그리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1천만에 가까운 우리 국민들이 지금 등록금 문제로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사교육비로 큰 고통을 겪는 우리나라 가정은 등록금이 '화룡점정의 고통'을 주고 있는 셈이다. 2007년 사교육비로 우리 국민들이 20조원을 부담했다는 통계까지 나와 있고, 졸업 후의 삶이 청년 실업 사태와 '88만원 세대'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까지를 감안하면 지금의 등록금 폭등 사태가 주는 체감 고통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도대체 왜 이런 사회가 됐을까? 바로



논단 안진결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사회의 책임을 포기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재단과 대학이 학생들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등록금 의존율 80%'를 설명할 길이 없다. 몇 년동안의 경제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가인상율의 3-4배 이상씩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의 행태를 설명할 길이 없다. 교육의 공공성, 사회성을 포기하고 교육을 시장논리에 맡겨버리고 있는 것이다. 시장은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제 아무리 도덕적인 행위주체가 잠가하더라도 시장은 무엇보다 '이윤'을 먼저 고려하게 돼있다. 그것이 인류 역사 동서고금을 통해 증명된 일이 아닌가.

프랑스는 대학 등록금이 연간 100~230유로(약 15만~33만원) 수준이다. 독일은 예전엔 학기당 100유로 정도의 학생회비만 받았다. 하지만 학생들이 대학에 오래 머문다는 지적에 따라 2006년부터 일부 주에서 학기당 500유로(약 72만원) 정도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 스웨덴 핀란드 등은 대학 교육이 무료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배우고 싶은 국민이 있다면, 대학교육까지는 가급적이면 돈 걱정 없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게 국가의 책임, 사회의 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공정한 자본주의를 위해서 고등교육까지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이 소득격차와 상관없이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것이 유럽이 가지고 있는 교육철학이고, 사회철학이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은 대학을 포기하거나, 설명 대학에 가서도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국가와 사회는 이를 나 몰라라 한다. 작년 62만 건의 학자금 대출 중에서 무이자 대출은 9.7%에 불과했다. 정부 통계상 20만여 명의 저소득층 대학생들 중 2만여 명만 무이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나머지는 어떻게 했을까. 그 고통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등록금이 비싸고, 자본주의 역사가 유럽과 다르다는 미국도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는 학비를 아예 면제해주거나 대폭 감경해주고 있다. 장학금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다. 하버드대는 올해부터 연소득 18만 달러(약 1억7000만원) 미만 가구 학생에 대해선 등록금을 연간 가계 수입의 10% 이하로 내렸다. 예일대는 올해부터 연소득 12만달러(약 1억1300만원) 이하 가정 출신 학생에게 등록금을 50% 감면해 주고 연소득 6만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면제하기로 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공공성이다. 우리나라의 진미 위정자들은 미국으로부터 나쁜 것만 배우지 말고, 정말 좋은 점도 배워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핀 대로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은 시장주의를 기조로 삼고 있다. 인수가 정부 조직을 '인재과학부'로 개편하려다, '교육'을 실종시켰다는 비판을 받자, 다시 '교육과학부'로 개칭한 것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름을 다시 바꾸었다고 해서 교육에 대한 관점과 태도가 바뀌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등록금 문제도 시장의 자율, 대학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은 한 폭등 사태는 계속 될 것이다. 중학교까지 입시지옥에 빠뜨리고, 사교육을 장려시켜 학생, 학부모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 뻔한 자사고, 특목고 300개 정책, 그리고 고교평준화 해제 방침도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은 시장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교육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논리, 사회성의 논리, 공공성의 논리가 필요하다. 그래야 학생도 살고, 학부모도 살고, 교육도 살고, 그 사회도 살게 된다.

메아리

기업과 대학의 상생 경영

▲CJ의 '백설 황금참기름'은 지난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바탕으로 탄생한 빅 히트 상품이다. 이 제품은 10년 넘게 신제품이 나오지 않았던 참기름 시장에서 출시 2개월 만에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으며, CJ가 아니라 유맥스라는 중소기업에서 만든 것이다. 유맥스는 기름추출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CJ 측에 자문을 구했고, CJ도 신제품이 필요한 시기였다. 이런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대기업-중소기업의 합작품인 백설 황금참기름이 빛을 볼 수 있게 됐다.

최근 LG전자도 '중소기업 6대 지원방안'을 기획해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추진 중에 있다. 이처럼 기업들 사이에서는 '상생경영'이 유행이다.

▲기업은 고객과 기업만을 대상으로 '상생경영'을 펼칠 것이 아니라 대학과도 서로 상부상조해야 한다. 대학은 인력을 공급하는 공급자 역할을 하고 기업은 이렇게 배출된 인재를 채용하는 수요자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학이 우수한 인력을 배출해야 기업이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배출된 인재로 기업은 발전하고, 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반대로 대학 역시 기업의 투자, 기부 등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학생들에게 더욱 질 좋은 교육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고 뛰어난 실력을 가진 학생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기업이 대학재정에 큰 도움이 되는 사례가 많다. 휴렛팩커드(HP)는 1966년 설립한 이후 스탠퍼드대에 기부한 돈만 3억 달러가 넘는다. 또한 빌게이츠 역시 지금까지 기부해온 230억 달러 가운데 50%이상을 대학에 기부해왔다.

이와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의 기부 금액은 적은 편이다. 그마저도 주요 사립대에 편중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대학의 경우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거

의 없는 편이며, 기업과의 산학협력 역시 저조한 수준이다. 역대 규모의 기업 기부를 구경만 하고 있는 대학들은 한숨만 나올 뿐이다.

▲그러나 대학도 그저 기업에 기부금만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기업이 대학에 투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대학도 준비해야 한다. 세계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기업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기부금이란 댓가 없이 내놓은 돈이긴 하지만 결국 기업은 이익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우리 대학도 기업이 먼저 기부를 제안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진지하고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나리 대학부장  
viki26@dongguk.edu

사설

등록금,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자

지난 6일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경영방침설명회'가 열렸다. 이번 경영방침 설명회는 총장이 올해 경영방침을 설명하는 것과 학생 대표자들의 질의에 각 기관장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기존의 등록금협상데이블을 대신한 자리였지만 인상된 등록금에 대한 논의보다는 학교의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 질문이 오고 갔다. 학생 대표자들은 하나같이 '일방적인 설명을 듣는데 그쳤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등록금협상데이블은 2006년부터 시작됐다. 38대 총학생회 당선자가 내세운 공약 중 하나로 등록금 문제에 대해 분관장점 등의 시위가 아닌 대화를 통해 해결해보겠다는 취지로 이뤄졌다. 이 같은 대화를 통한 등록금 협상으로 2006년에는 등록금의 1%, 2007년에는 0.5%를 환불해주면서 등록금협상데이블의 '협상'은 '환불'의 성격으로 굳어졌다.

등록금 협상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접거나 시위와 같은 소모적 방식을 지양한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한 방법이었다. 이러한 협상을 통해 학생들은 언제나 '등록금을 돌려받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등록금 문제를 푸는데 있어 환불이 최선인지 풀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고 국가와 재단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는 현실에서 등록금을 환불해주는 것이 학생들에게 어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오히려 등록금 인상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보다 등록금이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 지켜보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우리는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사학이 담당하고 있다. 사학이 무한경쟁의 시대에 엄청난 교육재정을 모두 떠안는다는 것은 무리다. 물론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부담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만 충당하려는 자세 또한 맞다고 보지 않는다. 또,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학교와 학생들의 소모적 대립도 이제는 다시 생각해 봐야한다. 그럴 바에는 대학의 교육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나설 수 있도록 학생과 학교, 재단이 힘을 모아야 한다.

동국만평 이주현 nitake@dongguk.edu.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선배! 왜 우리학교는 충학도 없어요? 우리가 '고객'이라잖아... 잇고 한강강해!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오영교, 편집인 윤재웅, 편집장 이운재.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8.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동국미디어센터 대학미디어팀 수습기자 및 국원모집 < 교육방송국 DUBS > 모집인원 00명, 응시자격 1학년 재학생, 모집분야 PD, 기자, 엔지니어, 아나운서, 접수기간 3월 3일(월) ~ 3월 12일(수) 오후 6시 까지, 원서제출 학생회관 4층 교육방송국, 문의 www.dubscast.com / 전화: 02)2260-8503

2007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 ● 모집인원 : 0000명(2학년 남학생) ● 지원자격 1. 입관일 기준 만 20 ~ 27세 이하의 남자,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으로 3학년 진학 및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한자, 군인사법 제 10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 지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8. 3. 3 ~ 3. 28 ● 구비서류 1. 지원서(4x5 사진부착) 1부, 2. 신원진술서 A양식 1부, 3. 대학 1학년 성적증명서 1부, 4. 칼라사진 5매, 5. 주민등록등본 2부, 6. 호적등본 2부, 7. 고교생활기록부 1부, 8. 가산점 증명서류 1부 ● 선발 방법 및 일정

외국어교육센터 어학특강 Open House day. 외국어교육센터에서는 동국대학교 재학생 여러분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하여 다양하고 세분화된 어학특강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각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여러분의 어학공부에 도움이 되고자 하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석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원어민특강 무료수강권 등 다양한 경품을 준비하였습니다.

외국어교육센터 1학기 어학특강 프로그램 안내 <토익, 토플, 기타 외국어 시간표> Conversation Writing, TOEIC TOEFL 일본어 중국어

천년고도의 숨결 경주 『동리·목월 문학관』을 찾아서 - 제5회 도서관문학기행 프로그램 안내 - 중앙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이 문학 작품속의 배경지를 기행하면서 자연환경과 그곳에 따르는 문화적 배경, 그리고 문화유산 등을 몸으로써 목서와 창작의 의미를 고취시켜 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문학기행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08. 3. 3 ~ 3. 28 필기고사 2008. 4. 5 1차 합격자 발표 2008. 4. 25 체력검정/면접평가/신체검사 2008. 4. 25 ~ 5. 23 2차 합격자 발표 2008. 6. 27 신원조회 2008. 6. 30 ~ 8. 22 합격자 발표 2008. 8. 28 ● 특 전 ○ 장교의 신분으로 전공분야의 실무를 터득할 수 있다. ○ 재학기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군사훈련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 전역후에도 일반 입대자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취업이 보장된다. ● 접수 및 문의처 : 학군단(전화, 서울 2260 - 8537)

외국어교육센터

# 학교 근처 맛집 BEST 7

# 봄바람 살랑살랑~ 점심먹으러 나가자!

## ‘전통과 맛은 비례하지’



‘뭐, 칼국수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 라고 말한다면 ‘아뇨, 이 집만은 예외요’ 라고 말할 것이다. 40년의 긴 역사를 자랑하는 충무칼국수집은 먼저 푸짐한 양에 한번 놀라고 맛에 두 번 놀라게 된다. 중국산 NO~! 이 집만의 자랑인 절집이는 아침마다 배달된 싱싱한 국산 포기배추로 하루에 3번씩 담가도 모자라다고. 간판에 당당히 걸린 젊었을 적 주인아저씨의 얼굴과 이제는 깊게 패인 얼굴 주름의 괴리에 웃음이 난다.

**추천메뉴** 단일메뉴 칼국수=1인분에 5,000원, 사리 추가=500원. 여름엔 풍국수도 별미 중에 별미.  
**TIP** 양이 상당히 많아 2인에 1인분 주문하고, 모자라면 사리를 추가 하는 것도 절약하는 방법.

## ‘허름하다고? 와서 한 번 먹어봐’



허름한 간판에 자세히 보지 않으면 지나치기 쉬운 영덕회식당. 점심 인기 메뉴로 매운 회덮밥에 시원한 콩나물 국으로 입을 달래며 맛깔난 젓갈 밀반찬으로 마무리 한다. 냉동회 몇 개로 맛을 내는 분식집 용 회덮밥이 절대 아니다. 막 떠낸 싱싱한 회와 야채가 수북한 그야말로 회-덮밥. 주인아저머니는 “여기는 막회와 과메기가 전문”이라며 비싼 다른 메뉴로 옆구리를 찌른다. 점심에 반주 한 잔 걸친 아저씨들이 “여기는 과메기가 맛나다”며 귀 뜸 하시는 걸 보면 틀린 말씀은 아닌 듯.

**추천메뉴** 회덮밥=5,000원, 물회밥=8,000원.  
**TIP** 아쉽지만 배달시키려면 킷 값 5,000원을 지불해야 함.

## ‘한 끼가 든든~’

‘점심에 고기는 먹고 싶은데 기름 냄새 배는 건 싫고...’ 이런 학생들 흥탁과 보쌈집으로 가자. 보쌈정식에는 돼지 수육과 시원한 시래기 된장국이. 된장정식에는 자글자글 된장찌개와 푸짐한 비빔밥이 함께 나온다. 비빔밥에 된장찌개 몇 숟갈을 함께 비벼 먹으라는 아주머니의 말씀을 귀담아 듣자. 푸짐한 밀반찬과 함께라면 비싼 한정식집 부럽지 않다. 점심때면 항상 바쁜 분위기 속에 다소 까칠한 아주머니 말투에 기죽지 말지어다. 사실 4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이 집은 식인 흉어와 수육, 김치 삼합으로 더 유명해 저녁에 가면 교수님들을 만날 수도 있다.

**추천메뉴** 보쌈정식=5,000원, 된장정식=5,000원  
**TIP** 자신 있게 말하자 “아줌마 밀반찬 추가요”



## ‘소스속에 담긴 10년의 노하우’



주인아저씨가 직접 녹음한 상송이 구식 오디오를 통해 흘러나온다. 요리를 시키면 부추 김치가 꼭 함께 나오는 독특한 분위기의 이탈리아 레스토랑 자콰. ‘재료를 아끼지 않는 소스와 10년 동안 변함없는 가격’을 꼭 강조 해 달라는 귀여운 주인아저머니는 “단가를 낮추려 콜라가루를 섞어 파는 음식점도 있는데 항상 음료는 캔으로 무료 서비스 한다”는 것이 철칙이란다. 부드러운 크림소스의 고소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치즈와 훈제치킨이 양껏 들어간 도리아도 한번 먹으면 잊을 수 없다. 제일병원 의사선생님들이 애용하는 세미나실도 단체 손님들은 이용할 수 있다.

**추천메뉴** 까르보나라=6,500원, 치킨도리아=7,500원.  
**TIP** 분위기는 저녁에 더 좋아요. 연인과 분위기 내고 싶다면 보르도 와인이 35,000원.

## ‘이렇게 편안할 수가’

‘떡볶이 cafe?’, ‘떡볶이+차?’ 얼핏 들으면 어색할 수도 있는 궁합이지만 학교 앞 NEW FACE 딸각발이에 들었던 순간, 그대들의 의문은 눈 녹듯 사라질 것이다. 삼청동 분위기의 아늑한 실내 공간과 4가지 딸각장, 카페, 크림소스, 오리지넬의 떡볶이, 주인아저씨가 직접내린 핸드드립 커피가 매력적인 곳. “학생들이 책도 읽고 편안히 쉬었다 가는 문화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하는 멋진 사장님과,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종업원 아저씨가 이 집의 대표 브랜드다.



**추천메뉴** 커플들에게는 부드러운 크림떡볶이와 카페라떼, 친구들끼리는 에이드와 빨간 떡볶이를 추천한다. 모든 음료=3,000원, 떡볶이=1인분에 3,500원.  
**TIP** 7~9인석 세미나실이 있다. 단, 반드시 미리 예약해야 한다. 노트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마다 랜선이 있으며 프린트도 이용(장당 100원)할 수 있다. 3월 한 달 이번 호 동대신문을 가져가면 50장 이하 프린팅은 공짜로 해주시기로 약속!

## ‘신입생들 많이 들려줘~’

혹시, 충무로 역 근처 공대 쪽문으로 올라오는 길, 아침마다 다녀가는 수산물 차를 본 적이 있으신지? 10년 째 매일 아침 무안에서 공수하는 싱싱한 낙지들이 바로 조방낙지 마당으로 들어간다. “낙지 가격에 비해 찬 가격의 점심 메뉴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며 저녁에 비싼 메뉴를 찾게 하기 위한 미끼라고 말하는 유쾌한 주인아저머니. 갖은 야양과 애교로 주인아저머니를 공략하면 밤도 낙낙히 쟁겨 주신다. 철판에 매운 낙지볶음과 콩나물, 김 가루를 직접 비벼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추천메뉴** 조방낙지백반=1인분에 5,000원  
**TIP** 4명이 가면 3인분을 시키고 밥을 추가하자. 이번호 동대신문 가져가면 3월 한 달은 음료 1병 또는 공기밥 1개가 공짜다.



## ‘점심엔 백반, 저녁엔 고기 안주에 소주 한잔 어때?’



요즘엔 연탄 보기가 귀해졌지만 이 집만은 예외. 이를 그대로 연탄불에 직접 굽는 두툼한 고기 맛이 일품인 ‘연탄 이야기’는 고기를 시키면 김치찌개가 서비스다. 연탄불 위에 보글보글 끓는 찌개와 소금구이, 밥과 계란이 정성스럽게 들어있는 추억의 도시락을 보고 있다면 마음까지 따뜻해진다. 잘생긴 주인아저씨는 연탄이야기란 이름을 상표출원하고 체인점도 준비 중이란다.

**추천메뉴** 소문난 소금구이=1인분에 5,900원, 고추장 삼겹=1인분에 5,900원, 양은 도시락=1,000원, 점심메뉴 백반(김치찌개, 부대찌개)=5,000원.  
**TIP** 우리학교 학생증을 제시하면 고기는 1인분에 1,000원씩 할인된다.

윤혜경 기자  
zzenobia@dongguk.edu  
사진 = 이정훈 객원기자

우리학교 역사와 함께하는 터줏대감을 만나다

## 동국의 낭만이 꽃피는 그 곳

### 변함없이 우리 옆에 자리한 뚝뚝이 할머니



원조, 원조, 원조..... 중문 근처의 장충동 쪽발집의 대부분이 외치는 문구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진짜 맨 처음 터를 잡은 가게는 장충동 뚝뚝이 할머니집. 장충동에서만 쪽발집을 51년간 운영해온 전숙렬 할머니는 느긋한 모습으로 계산대를 지키고 있었다.

전 할머니가 30세에 판자집에서 시작한 쪽발 집은 원래 빈대떡 집이었다. 그러다 안주로 쪽발을 찾는 손님들이 많아져 만주에 살던 어렸을 적 기억을 더듬어 만들기 시작했다. 딱자 4개로 출발해 체인점까지 여는 세월동안 한 자리에서 동국대 학생들을 바라본 할머니는 학생들을 칭찬하기 바빴다. “사실 예전엔 학생들이 술 먹고 싸우는 일이 자주 있었어. 요즘 학생들은 양반이야”라 말하는 전 할머니는 “요즘 학생들은 공부도 잘하고 착하기도 착하니 뭐라 더 지적할 것 없게 좋지”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학생들이 직업을 가지고 나서도 쪽발집을 찾아와 학생 때 자주 왔었다는 말을 건네면 항상 기쁜 마음이 라고.

6.25를 겪으며 고생한 것에 비하면 요즘 장사하는 것은 힘든 것도 아니라며 81세의 나이를 잊은 듯 활짝웃음을 지으시는 전숙렬 할머니. 그 건강한 웃음만큼이나 건강한 할머니의 쪽발을 오래도록 만나 볼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문서영 기자 syoob@dongguk.edu

### “동국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마련이 목표!”

“애들이 하안집으로 가자” 후배들을 배불리 먹고 싶지만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 선배들은 자주 이 말을 꺼낸다. 선배들이 소개해 주고 또 자신의 후배를 데려가는 그 곳에는 우리들의 영원한 이모, 김현숙 사장이 있다.

88년부터 장사를 시작한 김현숙 씨는 “여기서 일해 번 돈으로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공부도 시켰으니 정말 고맙죠”라며 이전 자식들 같은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마련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장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가진 포부였다고. 현재 생활이 빠듯해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녀의 표정에서 학생들을 향한 애정이 가득 느껴졌다.

20년 동안 동국의 학생들을 만나며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느냐는 질문에 80년대에 자주 왔던 국문과 학생을 떠올렸다. 집안 사정이 어려웠는지 항상 군용점퍼를 입고 있었고 몸도 불편해 보였다고. 딱히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지는 못했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공짜로 밥을 먹였던 기억이 있다고 한다.

너무나 평범하지만 ‘좋은 재료로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다는 그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맛과 인심을 기대해 본다. 문서영 기자 syoob@dongguk.edu



‘하안집’ 김현숙 사장